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 초심

무엇이든 할 수 있던  
'처음'의 기억



**心** 희망찬 마음=  
:마음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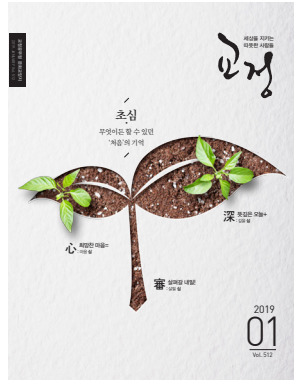
**深** 뜻깊은 오늘+  
:깊을 심

**審** 살피갈 내일!  
:살필 심

2019  
01

Vol. 512

2019.01



새로운 시작, 초심을 새길 2019년 1월을 맞았습니다. 마음을 잘 정돈해 보고 잃어버렸을지 모를 '처음'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교정>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1월호 (통권 512호) 63권 1호

www.correction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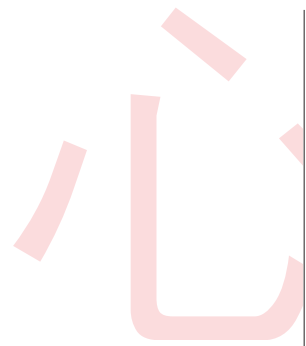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찬 마음 =

# Contents

04  
신년사 I  
박상기 법무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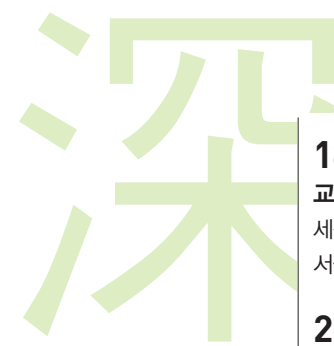
06  
신년사 II  
최강주 교정본부장

08  
마음을 열다

10  
테마를 넘다  
초심과 향심

12  
사람을 읽다  
'국민 아버지'에서 '청소년의 수호천사'로  
(새제로캠프 이사장 최불암)

16  
역사를 품다  
칼에 새긴 결의를 매 순간 바라보다  
이순신의 초심



뜻깊은 오늘 +

18  
교정은 행복을 싣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중물  
서울남부교도소 봉사 동호회 '나누리'

22  
영화 같은 하루  
대전교도소 교사 소병문 가족의  
아쿠아리움 관람기

26  
일상 상담소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 공황장애, 치료가 될까요?

28  
마음 나침반  
그대는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30  
시간을 달리는 교정  
타임머신을 타게 된 새내기 교정공무원 철수

32  
여행 따라 잉글리쉬  
런던 대표 관광지 6+ 위기 상황 시 필요한 영어 표현

36  
신조어백과  
인싸 & 갑분싸

38  
글로벌 핫클릭  
담장 안에서도 널리 퍼진 크리스마스의 온기 외



살펴갈 내일!

40  
여민 교정  
착한 마음이 모여 화목함이 싹트는 곳  
해남교도소

44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웃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46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용서를 구합니다

48  
교정을 말하다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上)

54  
국민이 전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망을 밝히는 직업 외

56  
HEADLINE  
희망의 날갯짓으로 날아오른 아이들의 무대  
김천소년교도소 뮤지컬 공연

58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5  
모범공무원들

66  
낱말퀴즈



# 신년사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북 정상 3번에 걸친 만남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로의 기반을 만들어간 한 해였습니다.

법무부도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쉽지 않은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의 제·개정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불법촬영·유포행위와 음주운전 등을 엄벌하고, 소상공인 영업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속된 노력으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노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온 힘을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법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만전을 기하였고,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무부안 국회 제출 등 법무·검찰의 개혁과제를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과 동참을 당부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올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협력에 있어 진일보한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엄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는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적인 인권의식, 탐욕적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사회를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불법적인 동영상 유포범죄, 기업 등 위계조직 내에서의 폭력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등 국민의 법 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정책과 정신질환자 치료 등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기죄를 비롯한 상습적·직업적인 사기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등 법제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의 소중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갑니다.**

인권은 부수적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핵심가치입니다. 새해에는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추진 등을 통하여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소위 '갑질'로 표현되는 차별적 인권의식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인권수사준칙 및 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 인권친화적 수사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수용자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밀수용 해소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교정교화라는 취지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기틀을 확립하고, 그동안 추진한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특혜로 인해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지역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비리 및 교육기관 비리 등 부패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기본적인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거듭나려는 변화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 변화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검사인사규정은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 작업으로 개선된 제도들이 제 목적에 부합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틀에 박힌 관행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시대변화를 법무정책에 담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이와 같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봉에 서야 합니다. 또한 2019년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황

전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측되는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상황을 상정할 때 현재와 같은 외국인 정책은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체계화된 외국인 체류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변화를 이끌고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선 지 어느덧 1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법무·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미약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초심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함께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하여 출발을 하지만, 주변의 비판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여 목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근거 있는 비판은 수용하여 정책결정에 반영 하되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은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어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천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2.  
법무부장관 박상기



## 신년사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의 기대 속에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지난해 저는 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조직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은 그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더 나은 교정을 만들기 위한 토양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교정가족과 수용자, 나아가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래된 관행들을 청산하고 조직을 일신하여, 국민에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희망을, 교정가족에게는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희망을, 수용자에게는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는 교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정립하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수용처우와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용자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친밀한 정책홍보로 국민의 신뢰를 쌓고, 국민을 한층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교정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열심히 손질하였습니다. 조직의 역량을 높여 빠르게 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정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정 기반을 충실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결집되어 이루어 낸 소중한 결과이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관련 지역사회와의 갈등, 인력부족, 과밀수용

등은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세계는 이미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중심에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속도와 성과'로 정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도록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에게도 부단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도 보다 많은 '실천'과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정가족 여러분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 갑시다.**  
(Happy staff equal happy customer)

조직 구성원의 행복은 조직의 성장 동력이며, 교정행정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로, 행복은 바이러스와 같이 교정가족 여러분이 우선 행복해야 수용자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역량을 총합하여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야간교대근무체계 개선 등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위라벨'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정시설 표준모델 개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직원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증진·확대하여 교정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내실 있는 교정교화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정행정을 추진해 갑시다.**

수용관리와 교정교화는 교정의 기본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엄정한 수용질서를 바탕으로 사람다운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정교화를 위한 그동안의 정책들을 면밀히 살피고 성과를 따져,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발전시켜 나가야겠

며, 심리치료, 정밀분류 등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시켜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합시다.**

교정이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비중이 더해 갈수록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관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행동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不愧屋漏(불괴옥루)를 지표 삼아 부조리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조직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나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우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넷째, 존중과 배려, 품격 있는 교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합시다.**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 발전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간의 결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격조 있는 조직문화는 조직발전의 근원이자 원동력입니다. 미국의 작가 미첼 쿠키는 '썩은 사과'는 반드시 혼자 썩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썩은 사과 하나가 그 독성으로 주변을 오염시켜 결국 전체에 '화(禍)'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무차별적인 진정, 투서 등 '생채기 문화', 품격 없고 정제되지 않은 '화풀이식 비판문화'는 본인과 조직의 '화(禍)'로 쌓여 조직의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존중과 배려, 품격 있는 교정문화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진 교정조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튼튼히 다지도록 합시다.**

먼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관계부처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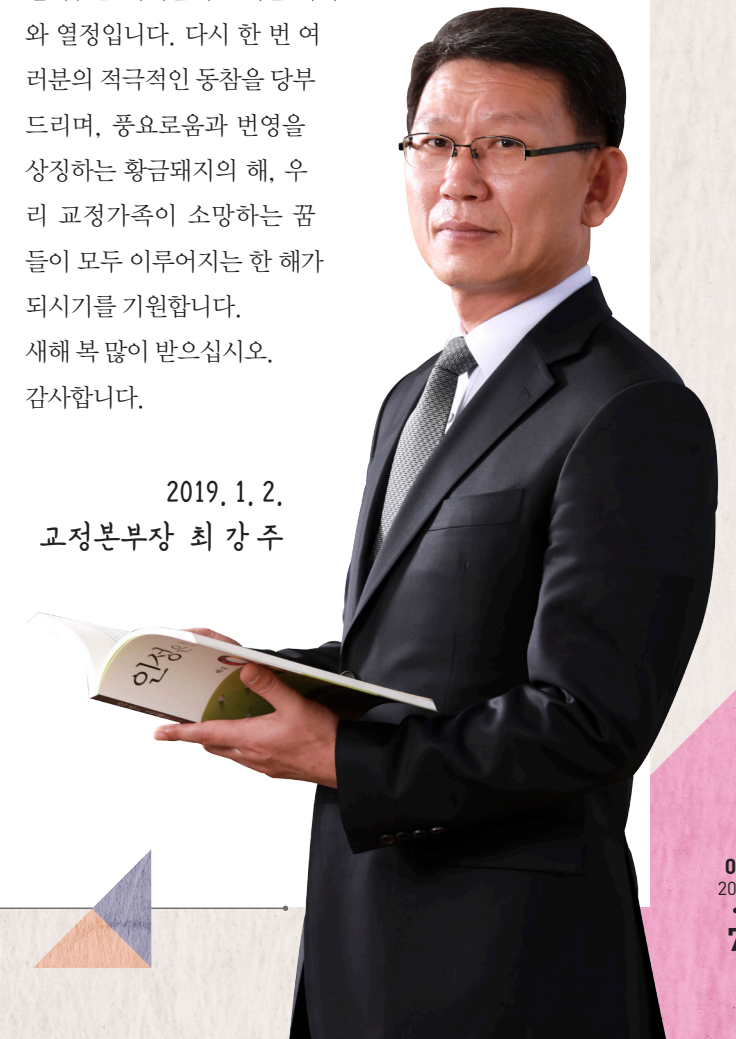
과 시설을 확보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상시 격무에서 벗어나고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직급격상,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증설, 지방교정청 기능강화, 교정청 독립 기반 조성 등 교정행정의 기능과 정책적 비중을 고려하여 조직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운영의 방향으로 삼고,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교정의 주인은 여러분이기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여러분의 의지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한 사람의 뛰어난 '개인적 리더십'보다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함께하는 '팀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교정 비전'을 완성하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밀거름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열정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 우리 교정가족이 소망하는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1. 2.  
교정본부장 최 강 주



언제나 초심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을 새롭게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의 경지를 맞본다.

피어오르는 존재의 큰 기쁨은 초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 미국의 의학자이자 노벨의학상 수상자, 조셉 골드스타인 -

수많은 날을 걸다보면,  
길고 긴 삶의 여정이 때론  
의미 없이 특별할 것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듯합니다.

내가 출발했던 지점과는  
멀리 떨어져,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갈 때

우리는 다시 그 출발선을,  
두근거리고 설레었던  
처음의 마음을 기억해봅니다.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  
열정과 성실로 중무장했던 그 처음을.

처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지금'을  
언제든 새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지금  
여러분이 간직한 초심을  
다시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초심과 항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계획거리가 많아지는 이맘때, 각오와 다짐은 굳건해진다. 그 마음가짐이 모두 초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 문태준 시인이 초심에 대한 단상을 전하면서 초심을 지켜낼 수 있는 또 다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해가 바뀌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달이 바뀔 때마다 애초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세운 계획들, 예를 들면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 적게 먹는든지, 하루에 만보를 꼭 걷는든지,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든지 등의 일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그러한 반성 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완하게도 된다.

올해에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물론 적게 먹는든지, 매일 걷는든지, 남의 말을 하지 않는든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그 일대로 나름 잘 지켜지고 있으니 계속해나가되 이 일 외에 또 다른 일의 실행을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혹은 갖게 될 두려움과 공포심을 없애주겠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정하다. 마치 기류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자신이 잘못된 일 때문에 괴롭고,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때문에 괴롭고, 다가올 미래가 캄캄하다고 생각해서 괴롭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기도 한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나의 새해 계획이다. 김중삼 시인의 시 가운데 ‘평화롭게’라는 시가 있다. **“하루를 살아도/ 온 세상이 평화롭게/ 이틀을 살더라도/ 사흘을 살더라도 평화롭게// 그런 날들이/ 그 날들이/ 영원토록 평화롭게”** 이 시의 말씀이 특별히 별다른 것이 아닌 듯해도 이 시가 소원하는 것처럼 사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와 주변과 온 세계가 평화롭되, 그런 날들이 하루 내내, 이틀 내내, 사흘 내내, 한 계절 내내, 한 해 내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이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평화롭기를 바라는 이 일의 성취는 간단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는 하루를 살더라도 평화롭게 살겠다는,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불안함을 주는 일이 없이 도우면서 살겠다는 각오가 들어 있고, 이 각오는 나의 새해 계획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이른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행복하라.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라.”** 우리 모두가 참회하고, 양심을 그치고, 빼앗지 않고, 폭력과 위협과 차별을 그치고, 연민심을 내고, 용서하고, 베풀고, 양보하고, 해롭게 하지 않고, 어여뻐 여기면 모든 존재는 행복하게 된다. 자애로운 마음을 내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햇살과도 같은 표정을 짓고, 관용을 베풀고, 진실하게 대하면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존재는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회복된다. 마치 아픈 사람의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임제록’에 이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되겠다는 생각이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행복하게 된다. 한여름에 아주 키 큰 나무가 가진 큰 그늘이 다른 존재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되겠다는 생각이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평화를 얻게 된다.

이처럼 새해에 갖게 되는 초심을 계속 지켜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초심을 지켜나가는 마음을 ‘항심(恒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에는 이런 멋진 시구가 있다. **“물은 이처럼 밤낮없이 흐르지만 한번도 저 강이 가버린 적이 없고, 달은 저처럼 찼다가 기울지만 끝내 조금도 없어지거나 자란 적이 없다오.”** 이 시구가 말하는 것도 항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바로 항심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하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곤 한다. 매일 매일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내가 매일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매일 매일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아버지를 통해 매일 매일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논과 밭으로 아침 식사 전에 늘 지계를 지고 나가셨고, 오전과 오후 시간 내내 논과 밭에서 사셨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일을 끝내고 풀짐을 지거나 나뭇짐을 지고서 집으로 돌아오셨다. 눈과 비가 오는 날에도 아버지는 논과 밭으로 나가서 그날에 적합한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 일의 고단함에 대해 불만을 걸어로 드러내지 않으셨다. 묵묵하게 그 일을 하셨다.

향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든 다 함께 그 향을 즐길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향은 덕이 있다고 했다. 향기를 늘 갖고 있는 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매일의 일에 성의를 다해서 하되, 자신을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러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초심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켜가려는 항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국민 아버지’에서 ‘청소년의 수호천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써온  
국민 배우

최불암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 배우다. 과묵하지만 속이 깊은 아버지, 때론 정의로운 역할로 50년 넘게 브라운관과 무대를 누볐던 그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몇 안 되는 원로 배우다. 그렇다고 배우로서만 한정하여 최불암을 논한다면, 그에 대한 실례가 될지 모른다. 배우를 넘어 ‘인간’ 최불암의 삶은 더 의미가 있고, 귀감이 되는 까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전국후원회장



이라는 직함을 30년 넘게 달아온 그는, 늘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선을 기울이며 마음을 써왔다. 요즘 기부나 봉사를 하는 연예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말을 쓰는데, 최불암은 일찌감치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전해온 것이다.

‘제로캠프’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그의 이력도 현재 ‘인간’ 최불암이 견고 있는 선한 행보 중 하나다. 제로캠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 최불암은 이사장으로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제로캠프는 청소년 수용자를 위한 공연도 활발하게 펼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소년들을 구분 짓지 않는 점이 눈

에 띈다. 비록 잘못을 저질러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들 역시 문화예술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어린 청소년들’이란 사실을 최불암을 비롯한 ‘제로캠프’ 사람들은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소년 수용자들이 연기와 작사·작곡, 안무는 물론 소품 제작까지 직접 참여하는 공연은 제로캠프의 주관으로 2013년부터 매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열리고 있다.

감정을 표출하는 연극,  
아이들을 변화시키다

지난해 대한민국에 한파주의보가 붙었던 12월 13일에도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공연이 진행되느라 제로캠프 관계자들과 김천소년교도소는 분주했다.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에서 펼쳐진 이 뮤지컬 공연의 제목은 ‘안녕! 내일, 두 번째 이야기 : 비상’.

이날도 어김없이 김천소년교도소를 찾아 공연을 관람하고, 청소년 수용자를 격려한 최불암 이사장은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에 공감한 독지가와 각계 전문가, 교도소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제로캠프를 설립했다”며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제로캠프”라고 단체의 설립 취지에 대해 운을 떼었다. 그리고 오늘 공연의 의미에 대해 말을 덧붙여 나갔다.

최불암 (사)제로캠프 이사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버지상을 떠올릴 때 많은 국민은 배우 최불암을 꼽는다. ‘전원일기’와 ‘수사반장’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통해 우리네 아버지이자, 든든한 어른으로 오랜 세월 국민에게 다가왔던 배우 최불암. 이제는 ‘국민 배우’의 타이틀을 넘어,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행보를 걸어오는 그다. 지금도 쉽지 않은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며 아름다운 노년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어른’ 최불암을 만나봤다.

“교정본부와 일선에 계신 교정공무원분들의 한결 같은 노력에 힘입어 매년 이곳에서 뮤지컬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 수용자에게 교양 강좌 등을 통해 주로 ‘말로 써 이루어지는’ 교정 활동을 해왔다면, 제로캠프는 연극과 뮤지컬 공연으로 교정교화 활동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직접 감정을 표현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은, 지금 아이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무대를 통해 자기애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 그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는 그에게는 소년 수용자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묻어났다.

최불암 이사장이 소년 수용자를 위해 공연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2000년 4월 소년 수용자 500명이 천안소년교도소 특설무대에서 펼친 뮤지컬 ‘춤추는 별들’을 관람했을 때 일이다. 당시 뮤지컬에 우정출연했던 그는 공연을 관람하고 마음이 뒤흔들릴 만큼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뮤지컬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수용자가 된 청소년들이 주위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분노와 절망을 삭이고 밝은 미래를 열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무대에 오른 소년 코러스단 500명이 뮤지컬 곡을 합창으로 허밍을 했었는데, 무대에 오른 소년들, 관객인 소년들까지 모두가 울었죠. 물론 지켜보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청소년을 성장시켜야 할 어른의 역할

—  
몸은 어른처럼 훌쩍 컸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청소년들. 한때의 잘못된 실수로 죄를 저지르고 수용자가 된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들의 욕구와 욕망을 외면하고, 그저 불우한 가정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무관심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터. 최불암 이사장 역시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 생긴 결과가 아닐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와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 그만큼 아이들도 피해를 겪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부유해야만 잘 사는 것이라는 정신세계가 지배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보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살게 됐으면, 가난한 시절보다 더 큰 행복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적개심이 커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이런 모순된 폐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몇 년째 자살률, 이혼율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가치관과 생각의 힘을 키우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자본주의라는 틀에서 방황하다가 좌절하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 사회의 짐을 이고 가야 할 이 땅의 모든 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 최불암 이사장은 그래서 다시 한번 힘주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존재감과 의미를 발견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말한다. 청소년들이 가진 성향과 재능을 발굴하고 꿈을 지원하며 이들의 욕구와 욕망을 올바른 쪽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 예술로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그의 다짐

—  
최불암 이사장은 “매년 열리는 소년 수용자들의 공연이 모두의 눈물바다로 끝이 난다”고 나지막하게 얘기했다. 공연을 통해 이뤄지는 소년 수용자들의 성장은 그렇게 모두에게 감동과 위안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가 앞으로도 이 일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은 상처를 치유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존재감과 의미를 발견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곳에서 뮤지컬, 난타, 비보이, 사물놀이, 합창을 배우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화예술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에 발 담그는 데 제로캠프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극 무대를 밟으며 여전히 배우로서 쉽 없는 열정을 이어오는 최불암. 그러면서도 손자뻘인 위기 청소년들



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밥을 사주며, 소년 수용자들에게 치유의 무대를 선사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최불암. 반 세기가 넘는 동안 국민들에게 연기로 감동을 주었고, 30년의 세월 동안 봉사과 나눔으로 이웃에게 마음을 써온 국민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무던히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발자취로 사회에 희망을 전파하며, 자신이 수놓은 아름답고 고귀한 길목으로 뒤 따라올 ‘삶의 후배들’을 안내하는 중이었다.

### 최불암 이사장이 전하는 새해 인사

어느새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늘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국의 교정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다워진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교정공무원들은 매우 훌륭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하고 진실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교정공무원으로서, 당당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칼에 새긴 결의를 매 순간 바라보다 이순신의 초심

전란의 위기 속에서 조선을 구했던 장군 이순신.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늘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이 위인은 애국, 정의감, 효, 그리고 성실과 근신으로 모든 생애를 나아갔다. 그렇다면 이 바다 위 장군이 걱정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가치들을 지켜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언제나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서적: 「우리가 꼭 한번 만나야 하는 이순신: 이순신 리더십 특강(선)」



이  
순  
신

## 의협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장군

이순신은 뛰어난 전략가로서 전쟁에서 변화무쌍한 모책을 내고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한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까지 그의 내면에는 그만의 한결같은 초심이 있었다. 이순신의 초심은 정의를 위한 의협심과 부귀권세에 초연한 자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곧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를 찾아가 굴복시킬 정도로 의협심이 강했다. 어른이 되어서는 항상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으며, 출세를 위해 남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32세 때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권력 있는 귀족들을 찾아다니는 적이 없을 정도였다. 전란 중일 때 그의 초심은 결사항전의 의지로 표출되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경상도 진영이 함락되고 원균이 이순신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부하장수들과 옥포로 출동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지휘하였다. 그 결과 많은 왜적들을 죽이고 왜선 26척을 멸하여 승리를 거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노력과 정신력은 7년간 이어진 전쟁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순신이 초심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오랜 전쟁에서 매번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일이다. 격량의 파도가 달려들어 언제든 그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한 치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켜냈다.



## 칼에 새긴 초심

이순신이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단번에 증명해주는 상징물이 있다. 바로 자신의 좌우명을 새겨 넣은 검이다. 그 검명은 바로 그의 인생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다르지 않다.

三尺誓天山河動色 삼척서천산하동색  
一揮掃蕩血染山河 일휘소탕혈염산하

세 척 길이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도 빛이 변화도다  
크게 한번 휩쓰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

당시 북방의 여진 오랑캐와 남쪽의 일본군을 맞아 싸워야 했던 이순신은 이 두 검에 검명을 새기면서 자신의 결의를 담았다. 조선의 강토를 한 치라도 침범한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맹서. 또한 무장으로서 호연지기를 담은 그의 좌우명은 오로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위국헌신과 진충보국으로 귀결되었다.

아산 현충사에 보관된 장검은 1594년 4월 대장장이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어 장군에게 바쳤다고 전해진다. 칼의 길이가 전장 197.5cm에 칼날만 137cm이고 무게는 4kg이 넘을 정도다. 실제 이 긴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겠지만, 좌우명으로 삼아 곁에 두고서 마음을 갈고 닦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일상과도 같은 전쟁터에서 맞서 싸우며 외로울 때, 원균의 모함을 받아 화가 치밀었을 때나 조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때마다 검명을 의연히 바라보았다고 한다. 자칫 흐뜨러지려는 마음이 들 때에 그 검명을 다소곳이 바라보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훗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큰 상실감에 빠졌음에도 다시 전쟁터로 향했던 이순신. 또한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서조차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고 전한 그는, 이처럼 고된 삶의 여정과 생의 맨 끝에서도 그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주 포기하고 쉽게 마음먹은 것을 놓아버리는 요즘, 이순신이 자신의 칼, 아니 마음에 새긴 처음이 더 숭고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 이순신 장군이 1594년(선조27년) 4월 한산도 진중에 있을 때 만든 칼로 충남 아산의 현충사 내 이순신장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중물

서울남부교도소 봉사 동호회 '나누리'

월간 <교정>이 새해를 맞아 확 변신했다. 그간 교정공무원들에게 선물했던 작은 행복을,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담장 밖의 이웃에게도 선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사연을 보내 온 사람은 서울남부교도소 보안과의 권오영 교위다. 그가 소속된 봉사 동호회 '나누리'가 5년째 후원을 해온 에텔마을 아이들에게 새해를 맞아 선물을 전하고 싶다는 사연이었다. 이들을 위해 월간 <교정>이 기꺼이 발걸음을 옮겼다.



### 평소에도 행복을 나누는 '나누리'

이른 아침, 광명시에 자리 잡고 있는 보육원 에텔마을에 싱글벙글 웃는 네 남자가 모여들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남부교도소 봉사 동아리 '나누리'의 회원들로 보안과 소속인 권오영 교위, 김금호 교위, 이교혁 교사, 이덕산 교사다.

평소에도 서울남부교도소 동호회 '나누리'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에텔마을을 찾는다고 한다. 에텔마을과 서울남부교도소의 인연은 권오영 교위를 주축으로 벌써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아이들의 바깥나들이를 책임지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에텔마을 원장 및 교사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에텔마을의 박선미 선생이 고마움을 듬뿍 담아 인사를 건넨다.

"나누리는 눈썰매장, 야구장 나들이, 야외 캠핑 및 바비큐, 남산야간버스 투어, 크리스마스 산타잔치까지 저희 기관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주세요. 에텔마을은 원생들을 일대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바깥 외출이 쉽지 않기에 특히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이 에텔마을 아이들과 함께 할 외출의 주제는 '겨울놀이'다. 인천 문학경기장에 조성된 눈썰매, 놀이기구, 빙어잡이 체험을 함께 즐기기로 한 것.

6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나이가 분포된 10명의 소녀들은 출발 전부터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와글와글 시끌벅적 난리가 났다. 그 틈에는 권오영 교위의 딸 헤림이도 끼여있다. 아빠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꼬박 꼬박 따라온다는 헤림이는 이미 에텔마을 아이들과 '절친'이 된 지 오래.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빠가 "늘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은 아빠에 대한 존경과 애정으로 별빛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체력도 최고, 에너지도 최고**

모두가 차를 나눠 타고 신나게 문학경기장으로 향하던 그때 아이들을 위해 간식봉지까지 일일이 준비해온 권오영 교위가 눈에 띄었다.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니 봉사 내공이 이미 '최고 레벨'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30여 분을 달려 하얀 설경이 눈부신 눈썰매장에 도착하자 아이들 모두가 약속한 듯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나 할 것 없이 튜브를 챙겨 들고 눈썰매를 타기 위해 고지를 오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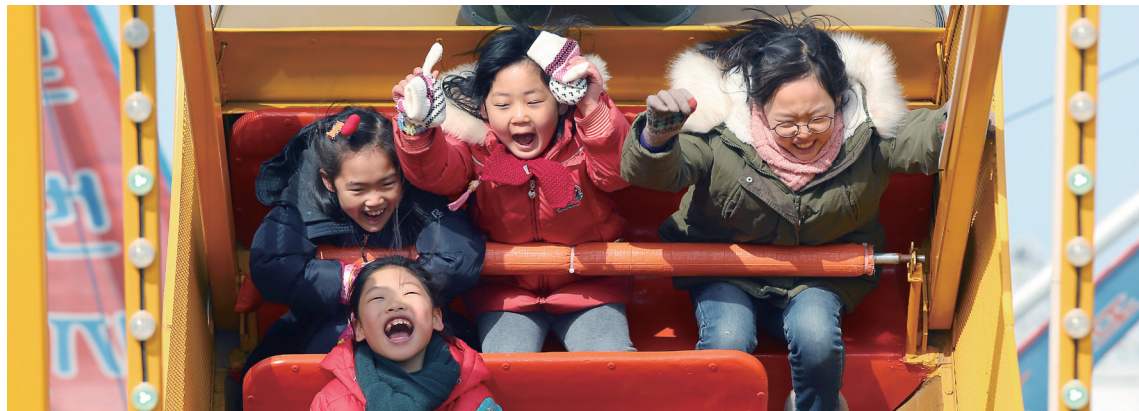
가장 바쁜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다. 추울세라 아이들 장갑을 끼워주고 감기 들세라 지퍼를 올려주며, 무거울세라 튜브를 대신 들고 아이들과 함께 출발선에 선 교정공무원들. 얼음 썰매를 탈 때도 아이들을 끌어주고 밀어주느라 한겨울임에도 땀을 뻘뻘 흘린다. 힘세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들에게 매달려 그야말로 마음껏 응석을 부리는 모습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만나온 아저씨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풍경들이다.

아이들의 놀이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이어졌다. 눈썰매, 얼음썰매에 이어, 디스코팡팡을 타고, 바이킹을 타고 굴렁쇠를 굴리고 눈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등 엄청난 체력과 에너지를 방출했던 것. 바깥 놀이에 목말라 있던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소리를 지르는 현장에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었다.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공무원들 역시 화답한다. 먼저 권오영 교위가 “변화된 ‘교정은 행복을 신고’ 첫 코너를 서울남부교도소가 장식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사회복지시설에 점점 도움이 손길이 줄어들다고 하는데 뜻을 함께 하는 우리 동료들 덕분에 행복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 김금호 교위가 “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교도소에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고백했고, 이교혁 교사는 “어제 보일러가 고장 나는 바람에 밤에 한숨도 못 자느라 사실 올까 말까 갈등을 했었지만 막상 와 보니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이덕산 교사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들 모두가 내준 시간, 그들이 하나 같이 보여준 진심은 밝고 씩씩하게 커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행복의 마중물,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 눈썰매랑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거기에 선물까지 받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더 큰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빙어잡이 체험이다. 아이들이 “잡았다”는 비명과 “안 잡힌다”는 한숨을 동시에 내지르자 교정 공무원들은 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이들을 돕고 독려하느라 바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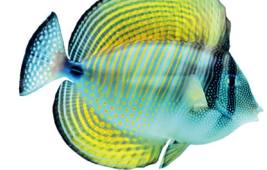
저녁으로 피자를 먹고, 마지막에는 각자 원하는 선물까지 푸짐하게 받은 아이들은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오늘 하루를 함께 보낸 에텔마을의 박선미 선생은 “교정공무원 분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감동했다”며 “아버지가 부재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좋은 롤 모델 역할을 해주신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가족을 위해 준비한 바다여행**

새해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마지막 날, 소병문 교사 가족은 모처럼 나들이를 했다. 15개월 된 딸 서하가 평소 목욕을 할 때마다 가지고 노는 것이 물고기 인형일 정도로 물고기를 좋아하기에 아빠 소병문 교사가 특별히 시간을 내 얼라이브 아쿠아리움 대구를 찾은 것이다. 물론 아내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마음도 컸다. 건축학을 전공한 아내 최진주 씨는 소병문 교사와 8년의 열애 끝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후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만 건축기사 자격증까지 있는 아내가 집에만 있는 게 소병문 교사의 마음에 걸렸다. 특히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 일을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은 더 컸다.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날씨도 추워서 한동안 아내와 딸이 집에만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이렇게 바닷속 물고기도 구경하고 따뜻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쿠아리움에 입장하자마자 아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상어’가 헤엄치는 수조다. 오랜만에 육아와 가정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 소병문 교사는 마냥 흐뭇하다. 물고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웅얼거리는 딸의 모습에 아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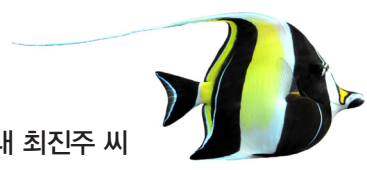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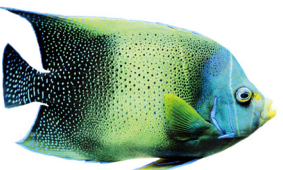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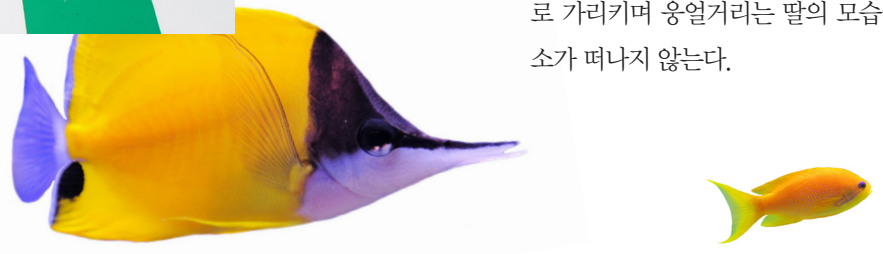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소병문 교사**

상어를 본 가족은 담수어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알록달록한 담수어가 작고 귀여웠는지, 서하의 푹푹푹한 눈이 반짝였다. 서하가 손가락으로 담수어를 가리키자 아빠 소병문 교사는 신이 나서 차근차근 담수어에 대해 설명해준다. 아빠 소병문 교사는 딸 바보다. 서하가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에 아빠는 딸 자랑에 여념이 없다. “우리 서하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뻐서 조리원에서 유명 인기스타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주글주글해서 안 예뻐 보인다면데, 우리 서하는 태어날 때부터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었어요. 저를 안 닮고 아내를 닮아 다행이죠.(하하)” 그러면서 그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아이에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여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소통을 잘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물론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에 소병문 교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출근하거나 외출했을 경우 가급적 일찍 귀가해 집안일을 하고 서하랑 놀아주려고 노력해요. 쉬는 날이면 가까운 곳에 나가려고 하고요.”

**바다처럼 깊이 사랑하는 가족 될래요**

**대전교도소 교사 소병문 가족의 아쿠아리움 관람기**

바다를 보고 있으면 괜스레 맘이 편안해지고 가라앉는다. 대전교도소 소병문 교사와 아내 최진주 씨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다.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 서하 역시 그런 아빠, 엄마를 닮아 바다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동물도 바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일 정도다. 그래서 아빠 소병문 교사는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좀처럼 집에만 있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감행했다. 진짜 바닷속을 보여주고 싶었던 소병문 교사가 가족 모두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 것이다.





### 바닷속 인어공주를 만난 가족들

알록달록한 담수어를 지나자 바다생물이 아닌 육지동물이 등장했다. 얼라이브 아쿠아리움에는 매니터, 프레리독, 라쿤, 코아티 같은 육지 동물들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뜻밖의 동물을 만나게 된 가족은 환호성을 질렀다.

가족이 다양한 동물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중 메인수조 앞에서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을 듣자마자 아빠 소병문 교사는 가족들을 메인수조로 이끌었다.

메인수조에서 푸른 인어 공주들이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아이들은 “인어공주다!”, “어 인어공주가 살아 움직여요!”라고 탄성을 내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소병문 교사 가족도 인어공주 쇼에 흠뻑 빠져들었다.

“인어공주 쇼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고기가 많은 수족관에서 세 명의 인어공주가 우아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 아이는 책에서 본 인어공주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하하)”



모든 관람을 마친 소병문 교사는 오늘 나들이에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 최진주 씨도 오늘 하루 만족스러웠으며 ‘특별한 하루’를 보낸 소감을 전했다.

“서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 감사할 따름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실내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나들이가 만족스러웠다는 아내의 반응에 어깨를 으쓱이는 소병문 교사. 오늘 얼라이브 아쿠아리움 대구가 별천지이자 신나는 놀이터였던 서하도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화목한 추억 한 페이지를 남긴 가족은 그렇게 서로 웃으며 오늘 이 ‘영화 같은 하루’를 마음 속에 오래오래 간직할 것이다.



다양한 해양생물, 육지생물들을 만나며 색다른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초근접 카메라를 활용하여 앵무새, 수달 등 동물들의 독특한 외형과 특징을 대형 화면으로 관찰할 수 있고, 최신 아쿠아 전시기법의 이색 수조를 통해 다양한 시선에서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화번호 : 053-247-8899  
 위치 : 대구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9층  
 홈페이지 : <http://www.aliveaqua.com>

‘영화 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mailto: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mailto:yjw1219@korea.kr)

##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 공황장애, 치료가 될까요?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숨이 막혀 와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땀을 흘리며 마구 떨고 있는 A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다행히 응급실을 찾아 심전도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도 없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고 돌아온 A씨는 이유도 모른 채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 일상생활이 두려워졌다.

A씨의 사례는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공황장애의 핵심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에 따른 불안·공포·회피적 행동이 발생하면 이를 공황장애로 진단합니다.

공황발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죽을 것 같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호흡 곤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마치 내가 아닌 것 같고 주변의 사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심장이 빨리 뛰고 멎을 것 같은 느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황발작의 증상들은 보통 갑자기 발생해 10분 안에 최고조에 달하고 20~30분가량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증상도 저절로 사라진다면 잠시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황 발작에 따른 괴로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나다가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기 불안'까지 더해집니다. 이 때문에 견디다 못해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외출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해지다 보면 알코올 남용이나 우울증 등 또 다른 정신적 합병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 두려워 이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출장을 갈 때 병원 옆에 숙소를 찾아서 예약하는 등 삶에 많은 제약을 두게 됩니다.

이렇듯 두려운 질환이지만 환자들이 치료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공황장애 가능성

당신의 생활, 건강, 심리를 위해 전문가가 조언합니다.



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경험을 자주 언급하면서 다소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극심한 불안감 정도로 막연히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황발작이 생길 때마다 응급실만 전전하거나, 심장 내과 등 다른 진료과를 찾아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이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실이나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검사나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염려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을 전전하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약해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합니다. 공**

**황장애는 소위 '정신력으로 발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교감 신경계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등 생물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특징, 어린 시절 부모를 상실하는 등 부정적 경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질병과 같이 본인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고 해서 치료마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다행히 공황장애는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이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와도 맞아 있습니다. 발견만 빨리하면 그만큼 환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공황 발작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로 공황장애의 배후에 있는 여러 심리적 요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동반한 경우, 약간의 긴장과 불안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확대시키는 '파국화'라는 심리기제를 환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환자의 증상에 맞게 병행해 받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흡법을 포함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얇은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식 호흡을 연습하고 생활화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공황발작에 따라 술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데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집니다. 때문에 알코올과 카페인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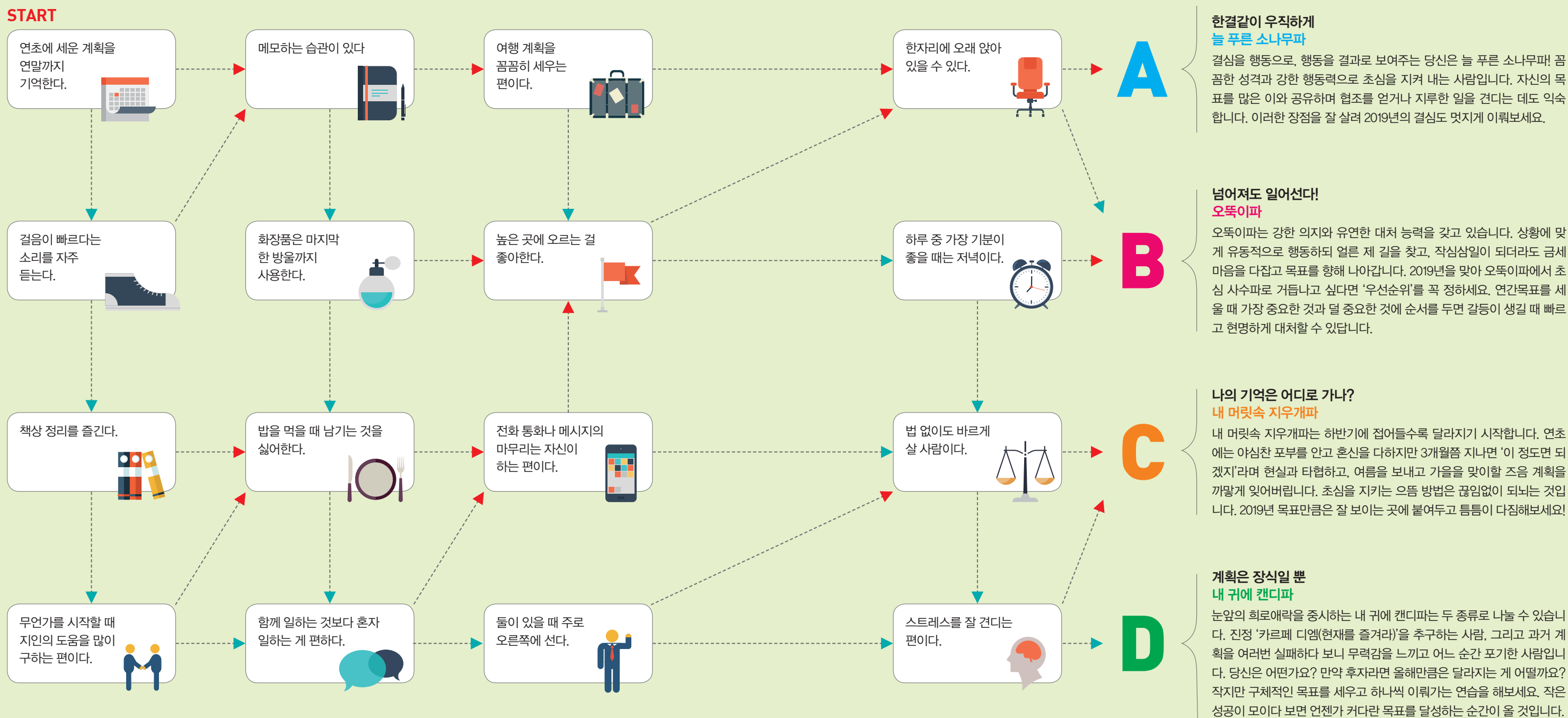
공황장애는 나약하거나, 혹은 특별하거나 특이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질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단순히 공황장애라는 단어에 대한 인지도가 아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인식이 확산돼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그대는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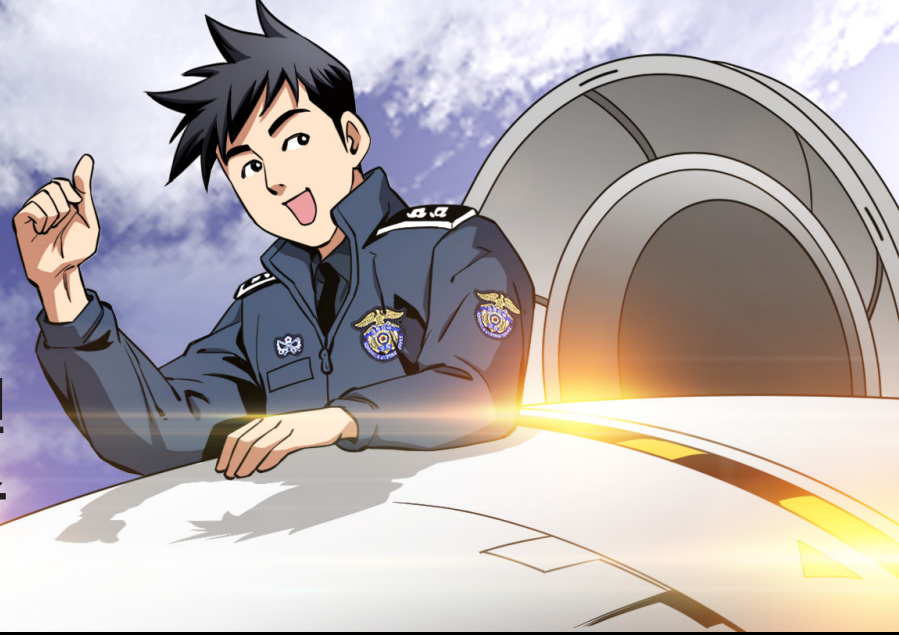
-----▶ YES  
-----▶ NO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1년 치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사람도 있다. 만약 당신이 '후자'의 경우에 속해 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마음 나침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살펴보고, 각 유형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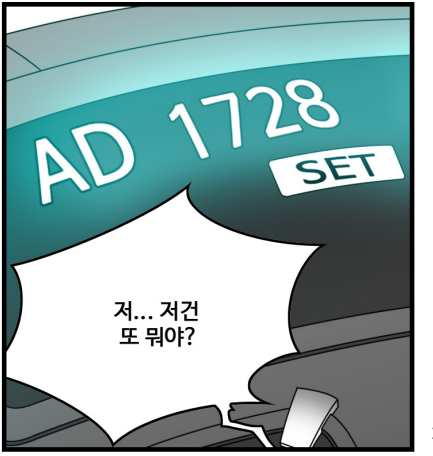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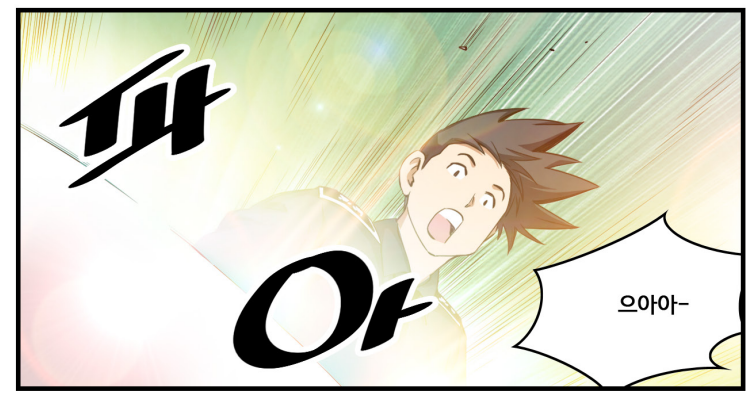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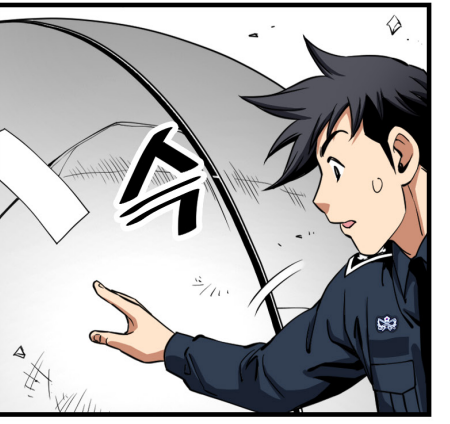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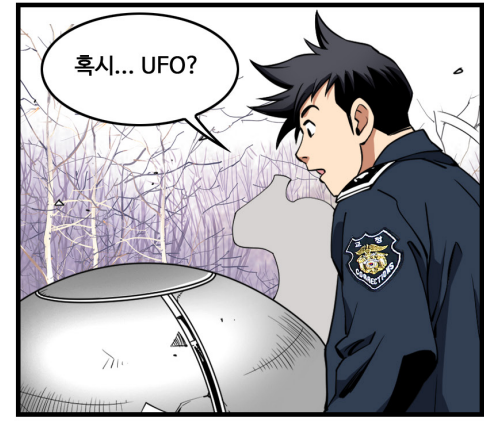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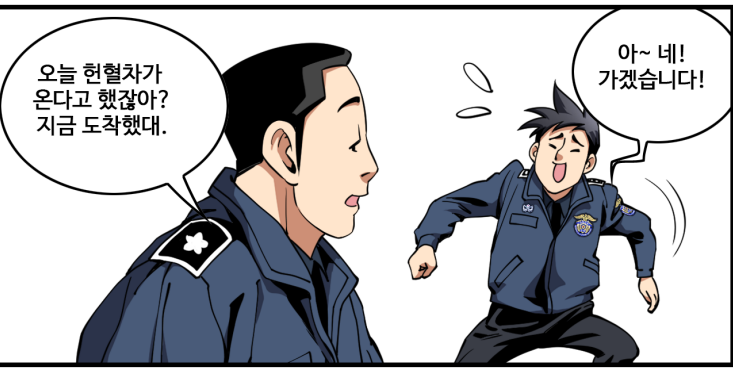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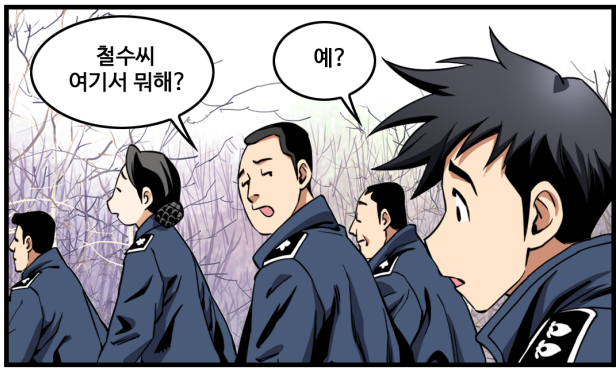
참고서적 <성격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지식여행), <마법의 심리테스트>(나카지마 마사미, 이젠), <성격 심리 테스트>(이태희, 참나무)



# 타임머신을 타게 된 새내기 교정공무원 철수



201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다음 호에는 1728년 조선시대로 가게 된 철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도시 런던 대표 관광지 6 + 위기 상황 시 필요한 영어 표현

## LONDON

●

위치 잉글랜드 남동부에 템스 강 연안  
인구 8,416,535명 (2016 추계)  
면적 1,572km<sup>2</sup>  
언어 영어  
국가 영국  
비행시간 인천 → 런던 약 12시간 20분  
런던 → 인천 약 10시간 50분

**소개** 강으로 둘러싸인 성을 뜻하는 켈트어 '린딘(Lyndyn)'으로 불리다 훗날 로마인이 라틴어로 '론디니움(Londinium)'으로 부른 것에서 유래한 런던은 유서 깊은 역사는 물론 문화와 예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이다. 뮤지컬의 본고장인 웨스트엔드,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한 곳,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는 아스널과 첼시, 셉록과 해리포터의 촬영지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볼거리가 넘쳐나는 곳이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영국의 무역, 경제, 정부의 중심인 동시에 유럽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필수 관광지이다. 왕조시대의 의식이 수많은 고딕 건축물로 간직돼 있으면서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현대의 문화적 낭만이 감도는 이곳, 바로 런던이다.

• 사진 : 타워 브릿지



### 대영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다. 박물관이 넓기 때문에 입구에서 안내지도를 챙겨, 위치를 파악하며 구경하는 것이 좋다. 1층에 위치한 로제타 스톤과 람세스 2세의 조각, 2층의 이집트 미라들은 꼭 봐야 할 전시품이다.



### 버킹엄 궁전

영국 왕실의 메인 왕궁으로, 영국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 중 하나다. 1703년에 버킹엄 공작의 저택으로 지어졌으나, 조지 3세가 이후 구입하여 조지 4세가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하게 되었다. 사실 버킹엄 궁전의 가장 큰 볼거리는 오전에 궁전 앞에서 치러지는 근위병 교대식이다. 교대식은 매일 다른 시간에 진행되므로 방문 전, 시간 확인이 필수다.



### 피카딜리 서커스

런던에서 최고로 변화한 옥스퍼드, 리젠트, 채링 크로스 스트리트에 둘러싸인 광장이다. 예전에는 채소와 꽃을 판매하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주요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광장 중앙에 위치한 분수대와 동상은 눈에 잘 띄어서 약속 장소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 타워 브릿지

양 옆으로 솟은 거대한 탑이 있는 우아한 도개교이다. 영국의 호황기였던 1894년에 총 길이 260m로 완공되었다. 당시 런던탑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점이 특징이다. 낮에 보는 타워 브릿지도 충분히 멋지고 웅장하지만, 야간의 타워 브릿지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반짝여 탄성을 내지르게 한다.

### 영어회화 표현



#### 분실/도난 신고 할 때

- Help me! I lost my wallet.
- 도와주세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 I left my bag in the bus.
-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 I want to report a theft.
- 도난 신고를 하고 싶어요.
- My bag was stolen.
- 제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 Please give me an accident report.
- 사고 신고서를 주세요.
- Please contact the Korean embassy now.
- 지금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세요.



#### 응급 시

- Is there a hospital nearby?
-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 He lost consciousness and fainted.
-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 Is there a doctor or nurse here?
- 여기 의사나 간호사 있어요?
- I think my leg is broken.
-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 I would like some aspirin, please.
- 아스피린 좀 주세요.
- How many pills do I have to take a day?
-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해요?

### 여행 TIP

#### 24시간 연중무휴 '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관련 사항은 물론 여권, 해외 이주, 영사 확인 등 각종 영사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전화번호  
국내 02-3210-0404(유료)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22-3210-0404(유료)  
현지국제전화코드 +800-2100-0404(무료)

#### 지원 내용

- 해외 재난 대응 및 해당 지역 안전정보 제공
-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 신속해외송금(1회 미화 3,000달러 한도)
-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 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 여권, 영사 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 상담



### 국회의사당

런던의 대표 랜드마크인 빅벤과 주얼 타워, 그리고 빅토리아 타워를 이루어져 있다. 에드워드 왕이 10세기에 건축한 이 건물은 원래 웨스트 민스터로 불렸던 왕이 거처하던 궁전이었다. 현재와 같이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32년부터로, 1834년에 대화재로 불에 탄 후 재건축되었다. 이 건물로 인해 영국에서는 몇 년간 고딕양식의 건물이 주를 이루었다.



### 세인트 제임스 파크

오래된 왕립 공원이다. 원래는 늪지대로 헨리 8세가 사슴을 사냥하던 곳이었다. 1828년 조지 5세가 공원을 프랑스식 정원에서 영국식 정원으로 다시 재 정비하면서, 커브길과 꽃이 가득한 숲으로 탈바꿈되었다. 초록빛이 가득한 만큼, 런던 여행 시 꼭 방문을 해보아야 할 곳이다.

# 주목 받고 싶은 우리(인싸) & 흐름이 끊기는 순간(갑분싸)

신조어 '인싸'와 '갑분싸' 알아보기



신조어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 반대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용어도 마찬가지다. 타인들의 주목을 받길 원하는 시대 현상, 원활한 소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탄생된 신조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용어에 담긴 시대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읽어내 보자.

## 인싸



용어 해석

인싸는 인사이드(insider)의 줄임말로 집단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개인적 성향의 아웃사이드(outsider)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용어의 인기는 최근 들어 치솟고 있다. SNS에서는 필수 해시태그로 자리 잡았으며, 인싸와 관련된 글과 사진은 대표적 SNS인 '인스타그램'에서만 19만 건을 웃돌 정도다.



파생어 : 핵인싸

(아주 커다란다는 뜻의 '핵'과 '인싸'의 합성어로, 인싸 중에서도 으뜸을 뜻하는 말)



전문가 용어 진단

개인주의가 날로 심화되는 요즘,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이 용어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아이러니하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인싸 열풍이 이른바 '가짜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자유로운 개인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우리에게 과거 공동체에서 느꼈던 안정감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오랜 시간 공동체 속에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개인주의가 됐으면 각 개인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인싸'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해석도 있다. 전문가들이 "과도한 인싸 열풍이 지나치게 가짜 욕구를 부추겨 삶을 각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개인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여전히 집단 속에서 잘 어우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를 넘어가는 과도기에 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요구하기에 앞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정말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갑분싸



용어 해석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의 줄임말이다. 주로 세 명 이상이 함께 대화하다가 누군가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냉각될 때 사용한다. 아는 사람 몇몇만 쓰던 신조어는 이제 대화장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이 돼 버렸다. 과거 '썰렁'이란 유행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효율적이고 재치 있는 신조어다.



유의어 : 갑분피(갑자기 분위기 피용 → 갑자기 분위기가 애매해지다)

반의어 : 갑분햇(갑자기 분위기 햇해지다 →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다)



전문가 용어 진단

갑분싸라는 용어가 각종 파생어를 탄생시키며 인기를 얻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화가 끊기는 여러 복잡 미묘한 상황을 단번에 이해시키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좋지 않은 분위기가 흐르거나 흐름이 끊겨도 이 세 음절만 외치면 분위기를 다시 전환시킬 수 있다. 갑분싸!

용어가 화제에 오른 것은, 우리 주변에 '갑분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탓이다. 그 말은 곧 우리 주변에 '갑분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이기도 하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눈치 없이 흐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주변 친구부터 한순간에 상황을 냉각시키는 한마디를 던지는 직장 상사까지.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논점에서 비껴난 얘기를 하는 사회 지도층도 마찬가지다. 결국 갑분싸는 정확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꼬는 용어로 쓰인다.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는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다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답변이 무엇이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갑분싸'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 글로벌 핫클릭

## 세계의 교정 뉴스를 살펴봅니다



지난해 12월, 세계의 교정에는 눈에 띄는 소식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담장 안에서 따뜻한 기운을 퍼트렸고, 또 누군가는 수용자임에도 자신의 성(性)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찾기도 했다. 지구촌 이색 뉴스들을 살펴보며 세계의 교정은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자.

### 담장 안에도 널리 퍼진 '크리스마스의 온기'

지난해 12월 13일 브라질의 리우자네이루의 벨스 형그리아 여자 교도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다양한 죄목으로 수용된 수용자들이 캐럴 대회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방 꾸미기, 성극까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한 것이다. 수용자 간의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09년 아나 가브리엘라 소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 최고의 미녀 여성 수용자를 뽑아라!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간)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타라 베라 블루스 여성 교도소에서 미인대회가 열렸다. 이날 여성 수용자들은 소 내에서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위킹을 선보였다. 미인대회는 수감자들에게 자존감을 북돋워 주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안나 소장은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대회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가족과 친지들의 응원을 받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며 "교도소에서 출소해 제 어린 딸, 어머니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꿈꾼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올해 대회에서는 강도 혐의로 39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27살 미셸 랑겔씨가 최고 미인에 뽑혔다.



### 미국의 교정제도, 14년 만에 개정되다!



미국 하원은 '미약 재범자의 형량을 낮추고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첫걸음법'(First Step Act)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찬성 358표, 반대 36표로 의결됐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양형기준과 교정제도에 관련된 개정이 이뤄진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정부 이후 처음으로 미약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동종 범죄를 3차례 저지르면 무조건 종신형을 받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완화해 징역 25형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것. 재범자에 대한 형량 기준도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또한 개혁 법안에는 교정 당국이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생활을 평가하고 직업훈련, 상담, 약물 남용 치료 등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판사에게는 미약 사범을 비롯한 비폭력 범죄자에게 법규에 정해 놓은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 남자 수용자의 성전환 수술을 허하노라

미국 아이다호주의 한 교도소에서 수년간 여자 행세를 해온 남자 수용자에게 주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해주도록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주인공의 이름은 '에드모'로, 평소 그는 화장을 하고 다니고, 머리 스타일도 여성처럼 꾸몄다. 특히 에드모는 이미 여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며 체질도 바꾸고 있었다고. 이에 따라 주정부 교정국은 원밀 판사의 명령에 항소하거나 앞으로 6개월 내에 에드모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에드모처럼 성(性)을 바꾸고 싶어 하는 수용자 30명이 현재 아이다호주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착한 마음이 모여 화목함이 싹트는 곳 해남교도소

해남교도소는 2010년 개청된 '젊은' 교정기관이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교정시설도 깨끗하니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더없이 쾌적한 셈. 직원들은 이러한 소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며 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덕분에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교정기관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늘 새롭게 '지금'을 시작하는 이 뜻뜻한 해남교도소에 다녀와 보았다.

### 직원들의 교도소 사랑, 으뜸입니다!

대한민국 내륙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 푸른 하늘 밑에 펼쳐진 산세들이 끝없이 이어진 이곳에 해남교도소는 당당히 자리해 있다. 8년간의 '교정' 역사를 쌓아오며 이제 해남의 자랑거리가 된 해남교도소는 어떤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해남교도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직원들에 앞서 만난 사람이 있다. 바로 해남교도소를 이끌고 있는 김재익 소장이다. 누구보다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여민 교정' 팀을 반겨주는 김재익 소장은 "직원들이 근무에 소홀함 없이 완벽히 임하고 있다"며 "인화단결의 자세로 서로 협력하며, 수용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직원들을 칭찬했다. 어디 그뿐인가. "소 내 시설이 깨끗하고, 잔디 하나, 나무 하나까지 아름답게 다듬어지지 않은 게 없다"며 "지리적인 불편함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라며 해남교도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교도소의 리더인 소장이 직원들과 교도소에 대한 특별한 애착으로 알뜰살뜰 소를 살피니 모두가 부단히 전진할 수밖에. 본격적으로 소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주기 위해 모인 직원들도 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특히 30년 넘게 교정에 몸담으며 다양한 교정 기관을 거치고, 경험해온 보안과 김남용 교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해남교도소는 공기도 깨끗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도 근사해요. 무엇보다 교도소가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근무 환경이 쾌적해서 좋습니다."

### 수용 관리는 철저히, 동료애는 돈독히

해남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460여 명 정도다. 그런데 한 수용동에서 담당하는 수용 인원은 50여 명 정도로 다른 교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니, 수용 관리가 원활하다. 수용처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 각 수용자 면담도 수월하게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랑거리는 또 있다. 2015년부터 협력 의료기관인 해남종합병원과 원격 진료 협약을 맺은 일이다. 이를 통해 전문의가 수용자를 대상으로 원격 화상 진료를 하며 의료처우는 높이고, 외부병원에 대한 방문 부담은 완화하고 있다. 개청 이후부터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력해온 해남교도소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담장 안에서는 이처럼 직원들이 탁월한 근무 여건을 바탕으로 교정교화에 매진하고 있다면, 바깥에서는 동아리 활동으로



활력을 도모하고 단단한 동료애를 쌓아오고 있다. 탁구, 풋살, 산악 동호회까지, 다양한 동아리로 직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호흡하는 문화가 조성된 것. 특히 해남교도소 직원의 절반이나 되는 인원을 회원으로 둔 산악 동호회의 '리더' 총무과 김정수 교위는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동아리를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다.

###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마음은 오간다

교도소 분위기는 두말할 것 없이 좋다. 규모가 큰 다른 교정기관에 비해 인원이 적은 만큼 늘 가족처럼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김재익 소장이 주도하는 격의 없는 소 내 분위기도 단단히 한몫을 한다. 보안과 최성문 교사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덧붙였다. "소장님은 허례허식 같은 격식보다는 직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편이에요. 가령 직원 단합 차원에서 회식을 할 때에도, 강압적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서로 어울려 화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죠. 소장님이 직원들을 늘 배려하기에, 직원들도 소장님을 믿고 따르며 소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하는 소의 분위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해줄 사람들이 있다. 이곳 해남교도소에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50여 일간 단기 근무를 했던 마을 주민 전석봉 씨, 안현미 씨다. '관공서의 단기 일자리 채용'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침에 따라 여러 절차를 밟고 해남교도소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던 두 사람은, 그동안 소에서 있으며 느꼈던 감사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 늘 여쭙 봐주시면서 저희들을 배려해주셨어요.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고, 행여 저희가 불편한 게 있을까 먼저 걱정해주는 친절한 직원 분들을 보며 무척 따뜻한 기운을 받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엄격한 위계보다는 배려와 화합을 중시하며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해남교도소는 그 좋은 기운을 끝까지 유지해갈 교정기관임에 틀림이 없다.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지금의 마음가짐으로 성과를 쌓아올릴 해남교도소의 모든 발자취들은 어떤 빛을 날까, 벌써 기대가 된다.

### 교정공무원 mini 인터뷰

### 직원들의 새해 각오와 다짐!



교감 김남웅

동료들에게 늘 웃음을 주는 동료로, 후배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선배로, 그리고 사회에는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그런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해남교도소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교위 김정수

건강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 직장과 가정, 사회 활동에만 신경쓰다 보니 정작 저는 젊다는 것 하나 믿고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새해에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사 최성문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큼, 저에게 있어 올하는 신경 쓸 게 많은 한 해입니다. 가족들을 잘 부양하며 올해도 무탈하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올해 부모님이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위성권

가족과 제 자신 모두에게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잘 챙기며 올 한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겨주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 계발을 하고 싶어요. 올해 2019년을 뜻깊게 보내겠습니다.

### 국민 mini 인터뷰

###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해남 주민들 소감 한마디!



마을 이장 전석봉

본격적으로 교도소에서 일하기에 앞서 참관 행사에 참여했을 때, 무척이나 깨끗하고 첨단화된 교정시설에 크게 감명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기분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내내 지속됐어요. 직원분들이 저희를 아껴주셨던 덕분이에요. 이제 저는 교도소를 떠나지만, 교정공무원분들을 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부 안현미

그동안 '교도소'라고 하면, 수용자를 먼저 떠올렸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어둡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 일하다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교도소에는 '교정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은요, 늘 따뜻하게 저희를 대해주셨던 직원분들 덕분에 이전 교도소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사람이 돋보일 때 이 말을 주로 쓰곤 한다. 실제로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에 따라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분위기와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캐주얼한 옷을 입었을 때는 생각도 행동도 자유로워지는 반면, 정장을 입었을 때에는 왠지 오늘날만큼 매너 있게 행동해야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일단 옷은 잘 입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옷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패션 피플’이 대세가 된 시대에는 옷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광고만 보더라도 옷 잘 입은 사람이 보기 좋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나는 패션 피플과는 거리가 멀다. 흰 양말에 샌들을 신는 건 기본이고, 청바지에 구두를 착용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이번 생애에는 패션 피플이 되기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생애에 패션 피플로 태어나고 싶단 생각이 든다.

나는 제복 공무원이다. 그래서 옷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좋다. 무엇보다 이번에 바뀐 신형 근무복이 너무 마음에 든다. 평소에 슬림한 옷을 입어보고 싶었으나, 나이 들어 무슨 주책인가 싶어 몸에 딱 붙어 입는 옷이 왠지 쑥스러웠다. 그래서 그동안 지급되었던 구형 근무복도 수선 없이 웬만하면 그대로 입고 다녔다. 그런데 이번 근무복은 이미 슬림하게 제작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게다가 일선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한 넥타이도 굳이 매지 않아도 되니 더 감사할 따름이다. 18년 만에 바뀐 근무복에 대해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개선 근무복은 2018년 초 교정공무원 근무복 개선을 위한 디자인 품평회를 시작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 근무복 시제품 제작 발표회, 직원 설명회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정공무원 근무복 개선안이

## 옷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확정되어 지급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나긴 여정을 거쳤다. 많은 이들의 수고스러움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2019년 새해부터 전면적으로 신형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

새 근무복을 입게 되는 지금, 나는 1999년 교정공무원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오른다. 어머니께서는 전날 손수 다림질해 놓은 옷을 내게 전해주시며 “옷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니 반듯하게 입고 다녀라”라고 당부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는 나의 옷매무새를 고쳐 주셨다.

이제 새로운 옷을 받았으니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교정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그날처럼 말이다. 이번 신형 근무복이 착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슬림하게 제작된 만큼 교정이란 틀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좀 더 ‘슬림’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각이 가벼워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실행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을 것이다.

옷이란 무릇 그 사람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새 근무복을 입게 된 우리는 새로운 그릇을 받게 됐으니 여기에 새로운 정신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부디 힘든 시기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과거의 어두운 모습은 버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이 교정의 인식을 좋은 쪽으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고 금이 간 그릇’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고 반짝이는 그릇’에 담을 것인가? 모처럼 우리 몸에 딱 맞는 옷이 지급되었다. 부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도록 노력하는 2019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 용서를 구합니다

술에 취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떠나보내고 이곳에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6개월……. 고인이 되어버린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던 나머지 그동안 걸음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저를 데려와 자식으로 삼고 길러주신 아버지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난던 그 남자는 가정이 있었고, 손버릇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자주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어두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저는 빼뺀어진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바로 직장을 구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친구의 소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연애 5개월 만에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을 하여 제게서 멀어져갔고, 믿고 사랑했던 제 아내마저 같은 직장의 남자와 외도하여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핏줄인 어린 아들마저 아이 엄마에게 보내졌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혼자서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알코올중독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코올중독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살아가다 보니 결국엔 주위 사람들마저 모두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이 십여 년간 정신과 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6년 모 정신과 병원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두 번째 아내를 만났습니다.

서로가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왔던 우리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평범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보고자 다짐하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할 때면 자주 다투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 또한 잦아졌습니다. 의지력이 약했던 저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함으로써 비겁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연약한 여자에게만큼은 절대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던 제가 어느새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남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여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하였지만 죽는 것조차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곁에 남아주었던 아내를 결국 하늘로

떠나게 만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되새길 때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과 심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에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 그 사실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 함께 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제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통해 술을 끊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술을 끊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여 결국 추운 겨울의 문턱을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아내와 제가 서로 주고받았던 상당량의 편지들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다시 읽어 내려갈 때마다 여러 감정이 들곤 합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밀려드는 후회감……. 아내의 필체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집니다.

얼마 전 1심 재판 과정에서 저와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을 흘리던 처형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그저 죄송하기만 했던 저는, 죄인이 된 모습으로 재판장에서 처형을 마주 보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제 아내의 소중한 생명과 제가 감당해야 될 죄값의 시간은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눈감는 그 날까지 고인이 되어버린 아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가슴으로 낳아 친아들처럼 길러주시고, 암 투병 중에서도 저와 아내를 위해 애쓰며 챙겨주셨던 어머니조차 연락이 끊긴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어머니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힘든 수용생활을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이 말을 새기며 다짐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저 또한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을 절대 잊지 않고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했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하겠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저지를 모든 잘못들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떠한 죄값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에서 다 갚지 못한 죄값은 다음 생애에 가서라도 먼저 떠나간 아내에게 반드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처형과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上)<sup>1)</sup>



## I. 글머리에

우리나라에서 징역형 집행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도작업은 그 특성상 이윤추구보다도 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체에게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공간을 임대료 없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도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체는 교도작업을 생소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교도작업이 그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교도작업이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을 위해 부과하는 단순 강제노역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8년 우리나라 교도작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50여 개 교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약 390개의 교도작업장에서 300여 개의 민간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 기업체가 영세한 형편이라 중간에 도산하거나 주문수요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작업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직업훈련과 연계한 다양한 기술 습득으로 출소 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교정행정 정책목표 달성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동안 수용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교도작업이 일반 민간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은 민업 압박 문제를 야기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고 있는 징역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서 존치되고 있는 한 교도작업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징역형이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라 할지라도 이를 단순히 그의 범죄 행위에 상응한 복수적인 형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과 사회복귀를 위한 튼튼한 재사회화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도작업을 어떻게 활성화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으로 교도작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도작업 실행체계의 개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도작업의 의의

#### 1) 용어의 정의

교도작업(prison labor)이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sup>3)</sup> 형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제67조에서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교도작업은 징역형의 집행내용인 정역(定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게는 교도작업이 강제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으로 표기)」 제66조에서도 '수용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수용자에게 교도작업 수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자에게 강제하는 작업과 「형집행법」 제67조에 의한 금고형 및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의 신청작업 및 동법 제86조에 따른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작업 또한 교도작업에 포함된다.

역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자유형에서 중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작업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하나는 수용자의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처벌이며 의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화개선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교도작업은 수용자의 석방 후 건설적인 생활을 준비

1) 2019년 '교정' 이번호에 실린 상편의 글과 2월 호에 실릴 하편의 글은 2018년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s://www.corrections.go.kr/HP/TCOR/cor\\_mail/cor\\_info/join.jsp](https://www.corrections.go.kr/HP/TCOR/cor_mail/cor_info/join.jsp) (검색일 : 2018. 9. 27)

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탁희성 외 1인,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교도작업의 법적 지위-」(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6쪽.

하게 하는 수단이며 사회로부터 수용자의 격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된다.<sup>5)</sup>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도작업은 수용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기술습득을 통해 사회복귀 시 안정적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교정처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교도작업을 범죄인 노동(convict labor)으로 표현하고 있는 외국학자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면을 반영하여 교도작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7)</sup> 첫째, 교도작업은 범죄자에게 근로의식을 갖게 하고,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교도작업은 범죄자가 의무적인 노동시간을 통해 범죄를 반성하고 성실한 태도를 갖게 하는 교정처우의 일환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교도작업의 수익금을 교정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부 수익금을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원하는 등 회복적 사법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 2)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교도작업의 운영방식은 직영방식, 위탁방식, 임대방식, 도급방식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영방식은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제품 종류의 선정, 원료의 구입, 기계의 설비, 제품의 판매 등의 모든 작업과정을 교정기관이 직접 지휘, 감독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공기업방식(Public or State Account System) 또는 관사방식(官司方式)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정시설의 특수한 환경이나 수용자의 교화개선이라는 교도작업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참여가 전혀 없는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영방식에 따르는 경우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민영압박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노동력을 관용물품의 생산에만 이용하는 교도작업 관용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sup>8)</sup>

위탁방식(Consignment System)은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도작업에 사용할 시설, 기계기구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 받고 수용자에게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위탁자로부터 부속재료비와 노임 등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단가방식(Unit Price System)이라고도 부른다. 위탁방식은 직영방식이나 임대방식에 비하여 민간기업 압박의 영향이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부당경쟁의 소지가 있고 일시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근로정신 함양이라는 교도작업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고 위탁업자의 잦은 출입으로 보안상의 문제점이 지적된다.<sup>9)</sup>

임대방식(Lease System)은 교정기관과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 간에

계약에 의하여 교도작업이 이루어지며 교정기관은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노임을 징수하는 것으로 노무방식이라고도 한다. 즉, 임대방식은 작업기간, 취업 인원, 노임, 원료 구입, 기계, 기구의 설비, 노무분배, 제품 처분 등은 외부업자가 제공하게 하고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노무제공만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외부업자인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이 교도작업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작업방법이다.<sup>10)</sup> 다만 이 경우에도 수용자에 대한 계호와 처우는 교정기관이 직접 수행한다.

도급방식(Subcontract System)은 교정기관과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교정기관이 수용자의 취업 인원과 취업 일수에 따라 정한 보수를 받고 노동력, 재료,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여 그 사용에 따른 관리감독을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sup>11)</sup> 도급작업은 임대방식과 같이 작업을 주문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도급방식은 구외작업이 대부분인데 비해 임대방식은 구내작업이 보통이며, 도급작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임대작업은 교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취업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다르다.<sup>12)</sup>

#### 3) 교도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

교도작업 시행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작업의 부과, 작업의무, 신청에 따른 작업, 외부통근작업 등에 관한 사항은 「형집행법」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제65조~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작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교도작업

5) 김화수 외 7인, 「한국교정학」(서울 : 한국교정학회, 2007), 476-477쪽; 허주욱, 「교정학」(서울 : 법문사, 2013), 490쪽.

6) 형집행법 제65조에서는 수용자 처우의 원칙이라는 표제 아래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7) Christian G. De Vito and Alex Lichtenstein, "Writing a Global History of Convict Labour", Global Convict Labor, Brill, 2015, pp. 1-45를 인용한 허경미, "교도소 수용자노동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3호, 144쪽을 재인용. 이와 유사한 의견을 소개한 것으로는 Philip L. Reichel, "Corrections :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Bacon, 2001, pp.369-370.

8) 박영규,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4권 제1호(2014), 275-276쪽; 허주욱, 위의 책, 497쪽.

9)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1998), 514쪽을 박영규, 위의 글, 275쪽에서 재인용.

10) 허주욱, 위의 책, 496쪽.

11) 박영규, 위의 글, 275쪽.

12) 정창현, "교도작업의 효율성증진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9), 22쪽

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약칭: 교도작업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도작업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sup>13)</sup> 즉, 이 법률은 기존의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하여 교도작업의 운영과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도작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규정과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2008년 12월 11일 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sup>14)</sup> 「교도작업법」에서는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교도작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2017년도 말 기준 교도작업 규모는 총 세입액 975억 원(2016년도 이월금 포함), 총 세출액 902억 원, 이월금 72억 원이며,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 국유재산인 토지, 건물 등 작업시설은 1,541억 6,600만 원이고, 공작물 등은 23억 7,800만 원이며, 참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입 및 세출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sup>15)</sup> (단위:백만 원)

연도별	총 세입액	총 세출액	다음연도 이월금	비고
2013	61,776	40,565	21,211	
2014	69,195	51,817	17,379	
2015	85,801	53,834	31,967	
2016	104,461	86,244	18,217	
2017	97,566	90,298	7,268	

## 3. 교도작업 조직체계 개편 필요성

### 1)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체계의 연계 강화

수용자들은 비록 과거의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지만 본인의 행기만큼 복역한 후에는 사회로 복귀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출소 후 재범을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재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고 효율적인 교정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자가 사회에 복귀한 즉시 취업과 올바른 직장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출소 직후의 경제적인 자립은 재범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복역기간 중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교도작업 또한 직업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숙련하고 직장생활에 적용에 필요한 근로정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도록 수용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치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재범방지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은 수용자의 출소 후 취업·창업으로의 연계성이 낮아 국민들이 바라는 재범방지 정책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 교정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업 교도작업은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로서 비생산적이며 지속적인 작업량 확보가 곤란한 데다가 이를 지원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마저 그 경직적인 특성으로 인해 영세성을 탈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수용자를 그 적성과 자격증에 맞는 관련 교도작업에 취업시켜 기술을 숙련하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배려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함께 교도작업과정에서 기술 숙련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교도작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 2) '제2의 기회(the second chance)' 부여

수용자가 복역기간 사회복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소홀히 하면 출소 이후 경제적 자립 실패와 사회 부적응 등을 겪는 등 이들의 삶은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와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수용자가 개선된 교도작업 시스템을 통해 범죄로 인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출소 이후 맞이하게 될 인생 2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제2의 기회(The Second Chance)'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4월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제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6)</sup> 미국정부는 과거의 범죄자에 대한 엄벌 위주의 교정정책이 한계에 봉

1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3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Seq=90087&ancYd=20081211&ancNo=09137&efYd=20100101&nwJyInfo=N&efGubun=Y&chrCsCd=010202#0000> (검색일: 2018. 10. 3.)

15)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것임. 법무부, 『법무연감 2018』 (서울: 법무부, 2018), 272쪽.

16) 이하는 신용해,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적용 실태와 발전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2009년), 150쪽 인용.

착하자 2004년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교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이를 지원하는 입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백악관의 OFBCI(the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수용자 사회복귀지원을 돕기 시작하다가 2007년 상·하원의원 125인 공동으로 「제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을 발의하였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총 1억 6천 5백만 달러(2009.8.26. 환율 기준 약 2,0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예산은 수용자의 취업알선 등 현존하는 성인 및 소년 수용자를 위한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귀지원 시범 프로그램 지원, 강화된 마약처우 및 관련프로그램 지원, 연방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지원, 각종 수용자의 사회복귀 관련 연구·조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2004년부터 범국가적으로 '엘로우 리본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수용자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 취업과 사회 정착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17)</sup>

미국과 싱가포르에서의 이러한 사례는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형사사법체계와는 다르게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발생된 범죄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 공동체까지 범죄문제의 해결주체로 끌어들여 이들 상호 간의 화해, 피해의 원상회복, 재통합 등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이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수용자에게 제2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고 직업훈련과 기술숙련을 위한 교도작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정책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용자에게 제2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도작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이 필요하다.

## III. 외국의 교도작업 조직개편 성공사례

### 1.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

교도작업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ederal Prison Industries Inc., 이하 FPI)이다. 유니코(UNICOR)라는 상표명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연방교도소 산

업공사(FPI)는 미국 내 연방교도소의 교도작업을 관용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설립한 교도작업 전문회사를 말한다.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는 선발된 수용자들의 고용과 함께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교도작업 생산제품을 국방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상무부 등 정부 각 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 1) 조직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는 1934년 미국 의회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고용을 목적으로 입안한 미국법(U.S.Code) 제18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이 법률을 근거로 전국 연방 교정시설에서 교도작업을 운영하고 있다.<sup>18)</sup> 이와 같은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의 탄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의회가 교도작업 관용주의를 정식으로 입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이 제도는 교도작업관용주의에 입각한 교도작업제도에서 그 운영관리책임을 맡았던 교도관으로부터 벗어나 산업경영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그 운영책임을 지도하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교도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공사 조직으로 그 체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의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추천대표, 국방부장관 추천대표, 산업계 대표, 농업계 대표, 노동계 대표, 소비자 대표 각 1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또는 중역회의가 있으며, 이들 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교정산업의 다양한 정책 입안에 참가한다.<sup>19)</sup>

#### 2) 운영현황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의 사업운영자금은 특별회계제도 하에서 '회전기금제도(revolving fund system)'를 인정하여 자금배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산업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업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나 사업비 또한 연방교도소 산업공사 중앙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 산업공사는 법률상으로 미국 법무부 교정국과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교정국의 교정행정 정책을 따르고 있다.<sup>20)</sup> 산업공사에 소속된 공장이 있는 지역 교도소와는 유기적인 통합체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공사 직원과 교도소 직원과도 항상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 교도소와 산업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중앙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 교도소장들과 산업공사 간의 조정·연결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7) 자세한 내용은 신용해, 위 논문, 147~149쪽 참조

18) 권태정, “미연방 교도작업 산업공사(UNICOR) 운영실태”, 『교정』, 제53권 제5호(1990), 128쪽.

19) 권태정, 위의 글, 129쪽.

20) 이하는 허주옥, 위의 책, 522~523쪽 요약.

2017년 9월 30일 현재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는 16,891명의 연방 수용자를 고용하여 51개 교정시설의 59개 공장과 3개 농장에서 여섯 가지의 산업 및 서비스업, 즉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군복제조 등 의류 및 섬유산업(Clothing and Textiles), 전기전자산업(Electronics), 사무용가구산업(Office Furniture),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산업(Recycling), 콜센터 등 서비스업(Services)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규모는 5억 6천 159만 4천 달러이고 순매출은 4,537억 6천 3백만 달러이며 순수익은 501억 4천 1백만 달러이다.<sup>21)</sup> 한편, 미국에서는 교도작업에 따라 수용자에게 모두 5단계의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술종목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며 그 임금의 일부는 가계의 생계보조비로 송금도 해주고 일부는 석방 후의 생계자금이나 수용기간 동안의 일상용품 대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sup>22)</sup>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에 취업하여 교도작업과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출소 수용자에 대한 최근 12년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출소자들보다 재범률이 최대 24%나 낮았고, 취업률은 14%나 더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다.<sup>23)</sup>

이 연방교도소 산업공사는 생산된 제품이 교도작업 관용주의제도에 따라 각 정부기관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도 상호 협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즉, 산업공사는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직역으로 공장과 기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품을 만들어 직접 해당 기관에 이를 공급한다. 다만, 각 정부기관은 교도작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물품이 품절되거나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산업공사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받아 민간 기업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산업공사는 여러 종류의 작업을 통하여 각 수용자들의 특기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작업지도를 하고 또 특수한 형태의 각종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종목과 교도소를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에 제정된 '통합 및 계속되는 세출법(Consolidated and Further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2)'을 통하여 산업공사는 특별한 시범프로젝트를 외국에 소개하는 미국 기업의 본국귀환 등을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sup>24)</sup>

### 3) 주요 생산품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군복제조 등 의류 및 섬유제품(Clothing and Textiles), 전기전자제품(Electronics), 사무용 가구(Office

Furniture), 재활용사업(Recycling), 서비스사업(Services) 등 6개의 사업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는 다양한 군수품을 생산하여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다. 즉, 군복, 군장, 배낭을 비롯하여<sup>25)</sup>, 방탄헬멧<sup>26)</sup>, 방탄조끼, F-15 및 F-16 전투기와 코브라 공격용 헬리콥터의 부품,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로 대표되는 유도 미사일용 전선 등 다양한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sup>27)</sup>

## 2.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

싱가포르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와 같이 교도작업을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SCORE: The Singapore Corporation of Rehabilitative Enterprises, 新加坡復員技訓企業管理局)'에서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는 교정시설 내에 민간기업체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작업환경을 마련하여 수용자들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 1) 설립목적<sup>28)</sup>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의 전신은 1955년부터 교도작업을 담당하여 온 싱가포르 교정본부 소속 부서인 교도작업과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21)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 2017년도 연례보고서, [https://www.unicor.gov/publications/reports/FY2017\\_AnnualMgmtReport.pdf](https://www.unicor.gov/publications/reports/FY2017_AnnualMgmtReport.pdf)(검색일: 2018. 10. 6.).

22) 이영근, “한·미·일·중 교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현대 교정학의 쟁점과 과제”, 『윤강 정갑섭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1999), 222-223쪽.

23)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 홈페이지, [http://www.unicor.gov/About\\_FFPI\\_Programs.aspx](http://www.unicor.gov/About_FFPI_Programs.aspx) (검색일: 2018. 10. 6.)

24) UNICOR/Federal Prison Industries, Inc., “Bringing Jobs Home: Investing in America”, Petersburg, VA :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p.11

25) Wearing clothes prisoners made? You Just Might be a Soldier, <http://weaponsman.com/?p=14492> (검색일: 2018. 10. 6.)

26) 2011년 3월 9일 미국 연방교도소 산업공사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2천만 달러의 방탄조끼를 수의계약으로 주문을 따냈다고 밝혔는데, 이 방탄복은 파키스탄군에 공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미시시피주 야주시(Yazoo City)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이러한 방탄복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UNICOR 소속 수용자들은 시간당 23센트에서 1달러 15센트의 노임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방탄조끼의 경우 가격이 각각 170달러에서 325달러인 다섯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위 인터넷 사이트(검색일: 2018. 10. 6.)

27) UNICOR Wins \$20 Million No-Bid Body Armor Contract, <https://www.prisonlegalnews.org/news/2011/sep/15/unicor-wins-20-million-no-bid-body-armor-contract/> (검색일: 2018. 10. 6.)

28) 이하는 허주옥, 위의 책, 526-528쪽 요약.

29)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 2015년도 연례보고서 6쪽, <https://www.score.gov.sg/docs/default-source/module/annual-reportfiles/582238cf-31a-497e-b23d-7580293191b5.pdf> (검색일: 2018. 10. 6.)

1975년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법(The Singapore Corporation of Rehabilitative Enterprises Act 1975)이 제정됨에 따라 싱가포르 교정본부 교도작업과는 수용자의 고용, 직업훈련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교도작업장 및 직업훈련소를 인수하였고 1976년 4월 1일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로 승격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는 교도작업을 모든 교정행정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 공사는 수용자들에게 근면성을 주입시키고, 보다 많은 수용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며, 직업훈련 및 실제작업을 통한 기술향상을 주목적으로 교도작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 공사에서는 싱가포르 교정본부(Singapore Prison Service)에서 마련한 카운셀링, 교육, 복지 등과 같은 교정프로그램과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도록 교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교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스스로 개과천선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 2) 조직

설립 초기에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는 사장, 부사장과 경영부, 재정부, 판매부 등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다양한 조직 변경을 거쳐 2018년 현재에는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아래에 계선조직으로 재통합 및 사후지도부(Reintegration & Aftercare), 갱생사업부(Rehabilitative Enterprises)와 지원조직으로 재정 및 행정관리, 인사, 기획을 담당하는 기업지원부(Corporate Services)를 두고 있으며, 참모조직으로는 회계 및 리스크관리팀(Audit & Management Team)을 두고 있다.<sup>30)</sup>

공사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2018년 2월 말 현재 이사장 포함 1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이사장은 내무부 차관이 맡고 있으며 교정본부장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회계 및 위험관리위원회(Audit & Risk Management Committee), 설립위원회(Establishment Committee), 산업 및 개발위원회(Industry & Development Committee), 투자 및 재정위원회(Investment & Finance Committee), 갱생위원회(Rehabilitation Committee), 브랜딩위원회(Branding Committee) 등 6개의 위원회가 있다.<sup>31)</sup>

## 3)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의 주요 사업

### ① 직업훈련

1982년 5월에 착수된 수용자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동 공사에서는 엄정하게 선발된 수용자에게 필요한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가 출소 후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인 작

업생활을 통해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직업훈련의 주요 직종은 전통적으로 전자배선과정, 배선과정, 용접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교도작업공사의 주력 사업을 유지하고 취업을 원활히 지원하는 목적으로 세탁, 식품, IT 등 교도작업 현장에 직접 필요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② 생산제품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의 주요 생산제품은 초창기에는 등가구제품, 인쇄물, 양재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세탁사업, 데이터 입력이나 콜센터 등 아웃소싱사업과 작업장 임대업, 운송 및 창고사업, 식품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35년간 운영해온 세탁사업의 경우 싱가포르 공립 또는 민간 응급병원의 90%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8톤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다.

### ③ 민간기업의 참여유도

1976년에 시행된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계획에 따라 동 공사는 민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교정시설 내에서 민간회사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계획은 보다 많은 수용자를 고용하기 위한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의 취업전략의 일부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참여는 수용자의 출소 후 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크게 기여해 왔다.

### ④ 작업환경 및 작업장려금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의 교도작업 시간은 1일 8시간(08:00~17:00) 작업이 원칙이고, 1주에 44시간 작업을 기준으로(토요일은 4시간)하고 세탁 및 제빵 작업은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시간 내에는 작업에만 전념해야 한다. 노무제공 작업 등 개별 작업의 경우 일본의 형무작업에 비하여 다소 여유가 있고 하루의 작업량은 팀별로 또는 개인별로 할당하여 작업성과를 측정하여 행장에 반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는 동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장에 취업 중인 수용자에게 공사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임금, 보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는 우리나라와 같이 은혜적 성격의 작업장려금이 아닌 임금제 형태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다. 월평균 작업 노임은 S\$50~90(2005년도 9월 기준 31,250원~56,250원) 정도이다.

30)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 홈페이지, <https://www.score.gov.sg/about-us/organisational-structure> (검색일: 2018. 10. 6.)

31) 싱가포르 교도작업공사 2017년도 연례보고서 8~12쪽, <https://www.score.gov.sg/docs/default-source/module/annual-reportfiles/d0743c96-dcb5-41b4-86c7-54d3951d185e.pdf> (검색일: 2018. 10. 6.)

#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망'을 밝히는 직업

회사원 김희원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희망'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저는 교정공무원분들이야말로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햇빛을 비춰주는 사람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을 수용자들에게 희망의 가치를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어떤 그림자도, 그들도 생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교정공무원들이야말로 희망 전도사인 셈입니다.



교정공무원이 되려면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수용자에게 진심을 쓰는 일이 어찌 보통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 찬란한 희망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 자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희망을 밝히는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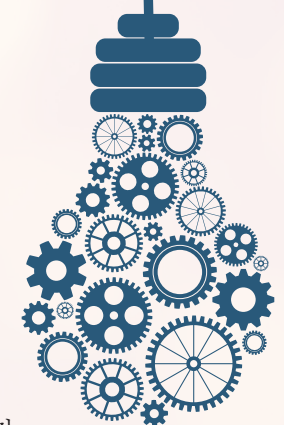
”

“

## 교정공무원분들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어요

대학생 이경원

교정공무원분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접하기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다만 지난해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서 교정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 일인지 어렵듯이 짐작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 한 가지만큼은 확신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정공무원분들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 지금처럼 흘러갈 수 없다는 사실어요. 죄를 짓고 교도소로 가게 된 사람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교정공무원분들이 훌륭히 교정교화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기계화되어가는 사회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것은 결국 사람뿐이라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분들이 의사라면, 수용자의 마음을 고쳐주고, 바꿔놓는 분들은 교정공무원인 셈이죠. 교정공무원 여러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저와 가족,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께 늘 마음으로 응원하며 '파이팅'을 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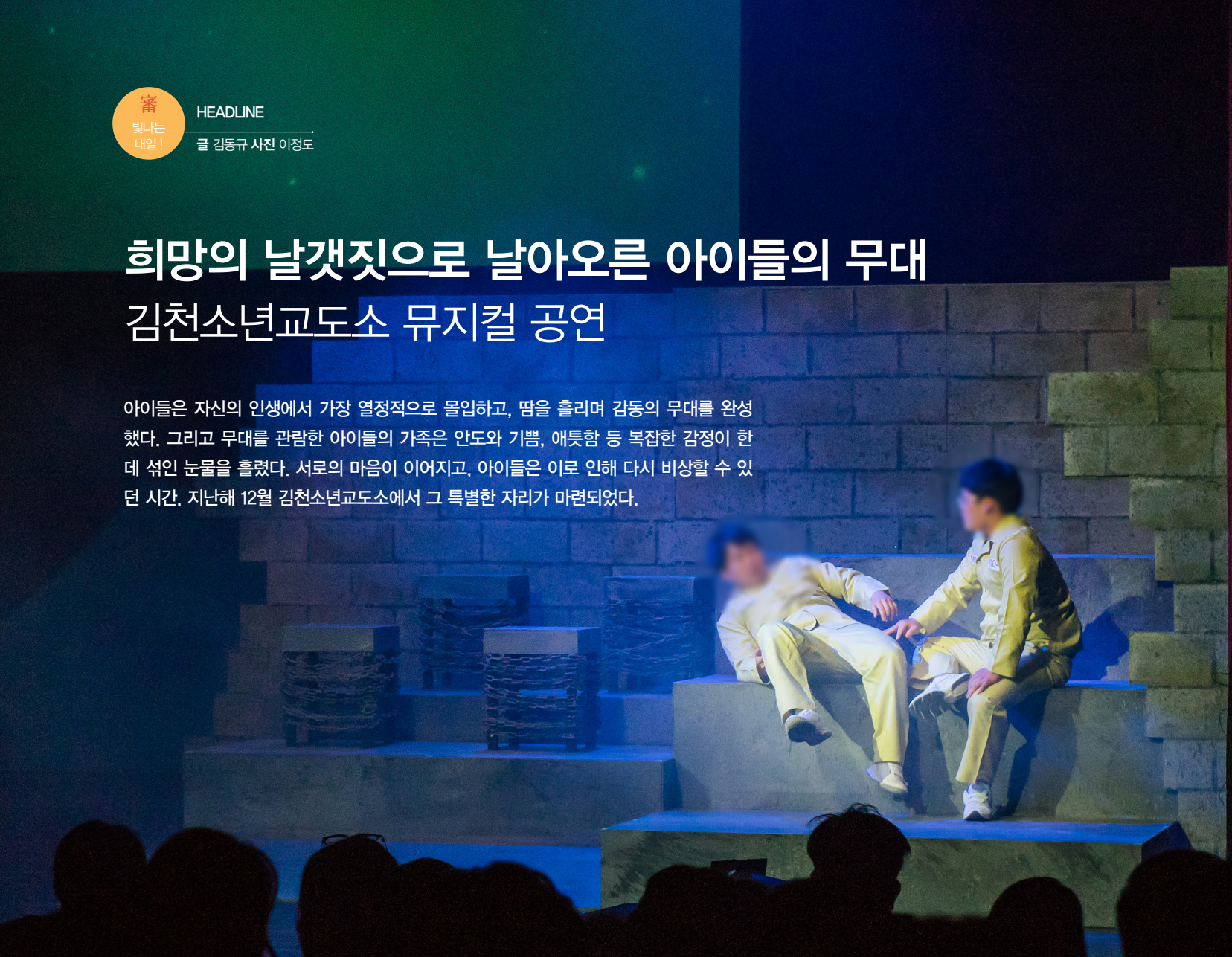


”

# 희망의 날갯짓으로 날아오른 아이들의 무대

## 김천소년교도소 뮤지컬 공연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땀을 흘리며 감동의 무대를 완성했다. 그리고 무대를 관람한 아이들의 가족은 안도와 기쁨, 애뜻함 등 복잡한 감정이 한데 섞인 눈물을 흘렸다.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이로 인해 다시 비상할 수 있던 시간. 지난해 12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 아이들, 희망으로 무대를 완성하다

유승만 교정정책단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등 제로캠프 운영위원, 그리고 교정위원과 수용자 가족 등이 빈틈없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김경란 아나운서와 소년 수용자의 진행으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본격적인 뮤지컬 공연에 앞서 우선 로우패밀리가 멋진 춤사위로 비보이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후 비보이반, 악대반, 합창반, 난타반, 사물놀이반으로 구성된 소년 수용자들의 오프닝 공연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오랜 시간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으로 재능을 다듬어갔을 소년 수용자들은 무대에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펼쳐진 무대의 하이라이트, 뮤지컬 공연 '안녕! 내일'이 닷을 올렸다. 소년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교도소 생활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우정과 갈등, 그리고 가족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무대. 소년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인물 속에 투영해내며, '담장 안 세상'의 다양한 희로애락을 표현해갔다. 또한 자신들이 절대 놓지 않을 '희망'이라는 가치를 열정 가득한 연기와 목소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전했다.

극의 하이라이트는 무대가 끝날 무렵 펼쳐졌다. 소년 수용자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영상이 무대와 관객석에 울려 퍼진 것.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자

식은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부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것이며, 부모는 '그럼에도 힘내고 견뎌내 주기를 바란다'며 자식의 등을 두드려주었을 것이다.

### 따뜻한 마음으로 이뤄낸 진정한 교정교화

이날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 '제로캠프'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과거 익명의 독지가가 소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퇴직금 30억 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교도소에서 진행되어 소년 수용자들의 심성을 순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하러 온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은 "제로캠프를 탄생하게 한 독지가의 나눔처럼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나눔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뜻깊은 소감을 밝혔다.

교도소를 방문해 소년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공연을 관람한 유승만 교정정책단장 역시 "소년 수용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힘찬 날갯짓을 할 소년 수용자들. 이들이 펼쳐낸 무대는 그 자체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상할 수 있도록 빛을 밝혀준 희망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관계자의 노력으로 이러한 무대가 많이 만들어져 소년 수용자들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의 장

지난해 12월 13일, 2018년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던 그 날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경북에 위치한 김천소년교도소만큼은 추위마저 비껴가는 듯했다. 장장 9개월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이벤트를 누구보다 열렬하게 응원해줄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벤트는 소년 수용자 창작 뮤지컬인 '안녕! 내일, 두 번째 이야기 : 비상(이하 안녕! 내일)'이다. 공연을 진행할 소년 수용자들과 지켜보러 온 가족들의 온기가 함께 맞닿으며 공연은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에서 열릴 채비를 마치고 있었다.



##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5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노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수용자 의료처우 등 주요 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직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8년 공직박람회 참가

교정본부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년 공직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교정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채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악력 테스트 체험, 정복 착용 후 기념사진 촬영하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교정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 교정본부 전 직원 간담회 개최

교정본부 전 직원 간담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안양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교정본부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2018년 교정본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9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 2019년 법무부 시무식 개최

2019년 법무부 시무식이 지난 1월 2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부 전 직원 및 법무연수원, 검찰청,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의 인사 약 7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시무식은 국민의례, 박상기 법무부장관 신년사, 신년 인사교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교화방송자문단 정기회의 개최

교화방송자문단 정기회의가 지난해 12월 5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최강주 교정본부장과 교화방송 자문위원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위원장 선정, 교화방송센터 업무개편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교정본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해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 2018년 하반기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장관 표창 전수식 개최

2018년 하반기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장관표창 전수식이 지난해 12월 27일 최강주 교정본부장 집무실에서 개최되었다. 하트세이버는 교정시설 내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명을 살리고 사망사고를 방지한 직원에게 주어진다. 이날 전수식에는 12명의 직원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으며 이 중 최우수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광주교도소 이원철 교도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일선기관 소식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전문강사 초빙 자살예방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생명 의전화 조경숙 원장을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자살징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살사도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주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자원봉사자 감사패 전달식 개최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2월 4일 미용봉사자 및 의료 진료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자원 봉사자들은 6년이 넘게 수용자 이발 봉사를 해온 사람들로서 이에 전 직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행사 실시

안양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교화공연 행사를 열었다. ‘범죄예방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공연에는 그룹 아이원(ONE), 가수 김유정, 김세림, 조영남 등이 참석해 무대를 꾸몄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범죄예방신문사 김창록 사장 외 초대가수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음주운전 제로(ZERO)화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청사 2층 직원 교육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직원 전원은 ‘음주운전 근절 선언서’를 하고 ‘음주운전 근절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주 1회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 발송하기’, ‘음주 위주의 회식을 문화공연 관람으로 대체하기’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만 선배와의 대화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7일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선배와의 대

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 280기 신규 교정직 9급 교육생 13명,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및 부소장 등 각 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2018년 4/4분기 인천지구 법무행정협의회 개최

인천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2일 ‘2018년 4/4분기 인천지구 법무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우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 법무행정 유관기관장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종료 후에는 구내 시설 탐관과 오찬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복종우 세계호신권법연맹 업무협약 체결 및 도시 기증식 개최

서울남부구치소와 세계호신권법연맹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남부구치소 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 계호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은 세계호신권법연맹 소속의 무예 지도자로부터 교정 활동에 필요한 호신권법을 지도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호신권법연맹은 이날 수용자 심성 순화를 위해 1,5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8일 소내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선언서를 작성하고, 결의문 낭독 및 선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4일, 31일 총 2회에 걸쳐 청렴실천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각 부서별로 결의대회를 실시한 다음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직원 응급처치 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사랑나눔 열린 음악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3일 ‘사랑나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공연은 방송인 조영구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수용자들은 공연을 통해 수용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성(性)인식 개선 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지난해 12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性)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용 성교육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안심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성’의 인식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제37대 원주교도소 소장 취임식 개최

원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제37대 원주교도소 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오광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용 질서가 확립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소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직원 모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제43대 강릉교도소 소장 취임식 개최

강릉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대강당에서 제43대 강릉교도소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동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상호간에 서로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외부강사 초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외부강사 초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초청된 이향숙 강사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직원들에게 소개하였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해 12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문 선서를 통해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생명존중·지킴이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10일 달서구청 신건강복지센터 이지현 팀장을 초빙하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존중·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교정자문위원회 개최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교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복한 대구교도소 만들기 방안, 청렴도 향상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7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희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 근절 선언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였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구 진보초등학교 교정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6일 진보초등학교 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성적 우수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교정 장학금을 선발하여 2008년부터 약 1억 8천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창원교도소 | 교도 박해민 제49대 창원교도소 소장 취임식 개최

창원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제49대 신입 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前 법무부 보안과장을 역임했던 김승만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이념을 실현하는 창원교도소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무연고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4일 교정협의회 지원 하에 장기수 20명을 대상으로 무연고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없거나 교류가 미미한 형기 15년 이상 장기수수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행사 실시

포항교도소는 지난해 12월 7일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정 행정을 홍보하고,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과학적 처우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공군 제3훈련비행단 헌병대대 참관 행사 실시

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 헌병대대 장병을 대상으로 교도소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헌병대대 장병 37명은 수용 거실을 비롯하여 수용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맡고 있는 심리치료센터, 직업훈련장, 작업장 등을 참관하였다.

####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대구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7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음주운전 근절 결의식을 시작으로 전용희 소장의 음주운전 사례 및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

## 대구지방교정청

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심은진 교수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 마련되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2018년 제4회 기능사 실기시험 193명 합격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생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 제4회 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렀다. 이번 기능사 실기시험에는 전기 47명, 자동차 정비 29명, 건축도장 29명, 방수 22명, 타일 28명, 온수온돌 20명, 공조냉동 22명 등 총 197명의 직업훈련생이 응시하여 193명이 합격하였다.

###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교위 승진 직원 신고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교위 승진 직원 4명에 대한 임명장과 계급장 수여 및 신고식을 개최하였다. 교위로 승진하는 직원은 홍성민, 김태완, 이재경, 이경선 교위 총 4명으로 신고식을 마친 직원들은 소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덕담을 나누었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진보중학교 교정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청송군 진보면 진보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 전달 행사로 성적 우수 학생 1명과 효행 학생 1명이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018년 1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명에게 매달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소년 수용자 뮤지컬 '안녕, 내일!' 공연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소년 수용자 창작 뮤지컬 '안녕, 내일!'을 공연하였다. 뮤지컬 '안녕, 내일!'은 소년 수용자들이 교도소 생활에서 겪게 되는 우정과 갈등, 그리고 가족, 꿈 그리고 희망에 대한 생각들을 녹여낸 창작 뮤지컬이다. 이날 공연에는 유승만 교정정책단장을 비롯하여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제로캠프 운영위원, 교정위원, 수용자 가족 등이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유성 수용자 가족접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수용자 4명과 수용자 가족 9명을 대상으로 가족접견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소원해진 가족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안정된 수용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사랑의 헌혈 실시

울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하였다. 울산혈액원은 헌혈에 동참해 준 울산구치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승진 직원 임명장 수여 및 신고식 실시

경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교위로 승진한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고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승진한 직원은 김효진, 조성흠 교위로, 두 사람은 소장으로부터 임명장과 계급장을 받았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개최

통영구치소는 지난해 12월 3일 취약계층 문화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CBS시네마와 (사)함께하는 사랑밭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 상영되었다.

###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형 연말연시 봉사활동 실시 및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 미르피아봉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관내 자매결연학교인 부북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사회복지시설 희망원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관내의 지역주민 8가정에 생필품 등 위문품을 지원하였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 행사 실시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중학교와 사벌초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사벌초등학교 학생 3명, 상주중학교 학생 3명 등 총 6명이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 우수 학생, 선행 및 효행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6일 원내동 119 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전 직원들은 향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피 경로와 각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고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 현장 방문

정만석 차장 등 인사혁신처 관계자 4명은 지난해 12월 11일 대전교도소에 현장 방문하였다. 정만석 차장 등은 중앙통제실, 변호사 접견실을 둘러보고 교정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제57대 청주교도소 소장 취임식 개최

청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제57대 청주교도소 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연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이 화합과 소통으로 신명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수용 관리를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소망나눔 음악회 개최

천안교도소는 지난해 12월 6일 소망나눔 음악회를 실시하였다. 행사는 남서울대학교 재능기부 공연봉사단이 수용자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화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음악연주, 성악, 노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수용자들에게 음악이라는 콘텐츠로 희망을 선물하였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주점속 소장

#### '제7회 대한민국 실천대상' 수상

청주여자교도소 주점속 소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제7회 대한민국 실천대상' 교정교화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심의 선정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해 공헌한 인물 및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로, 이날 주점속 소장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 청렴 및 갑질 근절 실천 결의대회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 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 직원이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지위 권한을 남용한 갑질을 근절하고자 마련되었다.

###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3일 충주시 산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 특별수업을 실시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직업 소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준법교육으로 구성된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정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홍성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직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참관 행사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및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경찰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개방교도소, 수용 거실, 공직등 작업현장, 만남의 집 등 시설을 둘러보고 선진화된 수용자 처우프로그램에 감명을 받았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참여 및 성금 기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해 12월 7일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여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기부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들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논산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보라미 준법 교실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정행정 홍보를 위해 진행된 이날 강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구 교정기관 교대근무체계 개편 관련 직원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교정기관 교대근무체계 개편 관련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정본부, 교정청,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 행사는 교대근무자의 운반휴무 보장을 위한 보안배치의 적정성 제고 방안과 현업·비현업 지점에 따른 교대근무체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이병석 광주교도소 가운데어린이집 준공식 개최

광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3일 직장어린이집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건축과 디자인을 맡은 공사 관계자와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가운데어린이집은 올해 3월 2일 개원할 예정이다.



### 전주교도소 / 교위 김도훈 전주시 완산도서관 업무 협약 체결

전주교도소와 전주시 완산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8일 '수용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주시 완산도서관은 협약에 따라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교양 증진

에 필요한 도서를 기증하고 수용자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순천교도소 / 교사 최창래 이경식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이경식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순천교도소를 찾아 수용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직원 간담회를 통해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의 교정행정 비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용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목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행복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제28회 아시아교정포럼 추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군산교도소는 군산대학교와 아시아교정포럼과 함께 지난해 11월 16일 제28회 아시아교정포럼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알코올 중독자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럼이 끝난 후에는 포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교정정책을 홍보하였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 직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의 시간을 가졌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외부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기관장 특별 교육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또한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통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배웠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단기근로자 참관 행사 실시

해남교도소는 12월 11일 해남교도소 단기 근로자 8여 명을 대상으로 교도소 참관을 실시하였다. 한 근로자는 "청사에서만 일을 하다가 교정시설 내부를 둘러보니, 교정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 수용자들을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교정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정읍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교정협의회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교정위원과 직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또한 교정위원회에 대한 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지난 일 년 간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교정위원들을 격려하였다.

## 교정공제회



### 임원 퇴임식 개최

교정공제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7대 교정공제회 권기훈 이사장의 퇴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권기훈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각자 위치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각자가 맡은 업무뿐 아니라 1만 5천여 명의 공제회원이 요구하는 복지 증진에도 더욱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김산태 이사와 김정석 이사대우도 지난해 12월 27일 직원들의 축하 속에 임원 퇴임식을 진행하였다.

## 국군교도소



### 연말연시 수용자 위문공연 실시

국군교도소는 지난해 12월 연말을 맞이하여 수용자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위문공연을 실시하였다. 11일에는 '교정협의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통해 수용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20일에는 연세대학교 크리스찬 동호회의 시 낭송과 피아노 연주, 오카리나, 소프라노, 난타 등의 음악공연을 통해 수용자들의 마음을 순화하였다. 국군교도소는 행사를 통해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할 것을 다짐하였다.

##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서울지방교정청 교위 유경열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장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사무장비 및 집기류를 설치하거나 PC 및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며 감사장 구축의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또한 주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향후 업무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울

### 수용자 인권 신장에 기여

수용자 호소에 앞서 특히 여성 수용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처우에 반영하였다. 특히 재판 전 심리적으로 불안한 수용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재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업무를 친절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였으며,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창원교도소 교위 이주경

대구

### 수용자 규율위반 행위 예방 및 고충 해결에 노력

동행 업무를 위하여 수용동과 작업장을 수시로 다녔으며,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를 단속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힘썼다. 특히 동행 업무 시 상담이 필요한 수용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고충을 해결하였다.

광주



제주교도소 교위 한경희

#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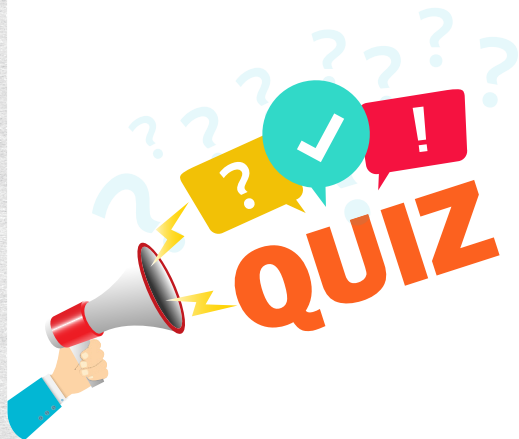
①	②	③				크
				④		⑤
⑥	타	⑦	타			
		화				버

### 가로열쇠

- ① 런던의 오래된 왕립 공원으로, 원래는 늪지대였으며 헨리 8세가 사슴을 사냥하던 곳은?
- ④ 이순신이 검에 새긴 두 개의 좌우명 중 하나로 '크게 한번 힘쓰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는 뜻을 가진 말은 일취소탕○○○○(이)다.
- ⑥ 최초로 성립된 불교의 경전으로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라"는 부처의 설법이 담긴 이것은?

### 세로열쇠

- ② 인사이드(insider)의 줄임말로 집단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는?
- ③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로 최불암 이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은?
- ⑤ 교정시설 내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명을 살리고 사망사고를 방지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인증서의 이름은?
- ⑦ 긴장과 불안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확대시키는 심리기제를 일컫는 말은?



### ★ 정답 보내실 곳 ★

우측에 마련된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는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 2019 월간 교정이 여러분과 더 가까워집니다!

## WHAT? 2019년 월간 <교정>에 어떤 참여코너들이 있나요?

**'교정은 행복을 심고'로 국민과 행복을 나누자!**  
전국 기관의 교정인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으로 국민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부담 없이 신청해주세요!

**'영화 같은 하루'로 인생 추억을 남기자!**  
가족, 동료,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 이벤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추억을 담다'로 내 추억을 꺼내자!**  
2019년 월간 교정 테마의 주제는 '심마음' 테마와 관련된 나의 추억담, 과거의 사연을 짙막한 글로 보내주세요!

**'교정 희망의 백일장'으로 글쓰기 실력을 뽐내자!**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세요!

**'낱말퀴즈'로 상식을 쌓자!**  
낱말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고!  
유익하고 재밌는 낱말퀴즈를 풀고 정답을 응모해주세요!

**'독자의견'으로 월간 <교정>과 소통하자!**  
월간 <교정>을 읽고 느낀 점을 보내주세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월간 <교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경품을 드립니다!

## HOW? 2019년 월간 <교정>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 참여방법

#### 엽서를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지에 마련된 독자엽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웹페이지 QR코드에 접속해주세요!

우측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100년의 여망,  
우리가 이어갑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